





6·25전쟁과 호국영웅 학도병 명예 선양

- 일자: 2019. 12. 6(금) 13:00~16:30
- 장소: 태백중학교 학도병 기념관 1층 영상실
- 주최·주관:  태백문화원
- 후원:  태백시  태백시의회  강원동부보훈지청



태 백 문 화 원

태백학도병 선양 학술회

1. 학술대회 개요

가. 학술대회 공동 주제 : 6·25전쟁과 호국영웅 학도병 명예 선양

제1주제 : 태백학도병의 참전과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의

제2주제 : 태백학도병 연구동향과 활성화 방안

나. 주 관 : 태백문화원

다. 후 원 : 태백시청, 태백시의회, 강원동부보훈지청

2. 학술대회 세부 추진 계획

가.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13:00~16:30

나. 장 소 : 태백중학교 학도병 기념관 1층 영상실

다. 방 법 : 관련 전문가 발표와 토론

라. 세부 일정

진행	시 간	내 용		기타
1부 12:40 ~ 14:00	12:40 ~ 13:00	등 록	참가자	사회 김수빈 국장 (태백문화원)
	13:00 ~		개회	
	13:00 ~ 13:05	개 회 식	국민의례	
	13:05 ~ 13:08		내빈 및 연구진 소개	
	13:08 ~ 13:13	시 상	병영체험 UCC 공모전 시상	
	13:13 ~ 13:20	개 회 사	배팔수 태백문화원장 권한 대행	
		축 사	류태호 태백시장	
	13:20 ~ 13:25	축 사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	
		영 상	학도병 관련 영상물 감상	
13:25 ~ 13:55	기조강연	6.25전쟁과 호국영웅 학도병의 명예 선양 - 김동정 교수(가톨릭대학교)		
13:55 ~ 14:00	휴 식			
2부 14:00 ~ 15:10	14:00 ~ 14:30	발 표	태백학도병의 6·25 참전과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의 - 이상균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사회 김재국 회장 (태백학도병 선양사업회)
	14:30 ~ 15:00	발 표	태백학도병 연구 동향과 활성화 방안 - 홍영호 박사(하슬라문화재연구소 소장)	
	15:00 ~ 15:10	휴 식		
3부 15:10 ~ 16:30	15:10 ~ 16:30	종합토론	· 발표자 · 토론자 - 김정현 박사(강원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이용연 회장(태백중학교학도병 화백회) · 의견개진 - 박정식 회장(태백중학교 총동문화) 외	

CONTENTS

- 01 기초 강연 : 6·25전쟁과 호국영웅 학도병 명예 선양 7
발표 : 김동정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 02 제1주제 : 태백학도병의 6·25 참전과 현대사회에서의 의의 31
발표 : 이상균 교수(강릉원주대학교)
토론 : 김정현 박사(강원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03 제2주제 : 태백학도병 연구 동향과 활성화 방안 55
발표 : 홍영호 박사(하슬라문화재연구소 소장)
토론 : 이용연 회장(태백중학교학도병 화백회)
- 04 종합 토론 89
토론 및 의견개진



기조 강연 : 6·25전쟁과 호국영웅 학도병 명예 선양

• 발표 : 김동정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6 · 25전쟁과 호국영웅 학도병 명예 선양

김 동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서 언

1950년 6월 24일 속초항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수많은 무장수송선, 어뢰정, 발동선, 화물선 등의 배들이 운집해 있었다. 드디어 어두움이 짙어지자 해상 38선을 넘어 대규모 선단이 남침을 감행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전, 즉 북한군 총공격이 감행되기 이전에 북한군 제945육전대는 정동진 해안 주변에 대규모 상륙선단을 상륙시켰다. 제945육전대의 임무는 북한군 제5사단의 남진을 촉진하기 위해 강릉의 국군 제8사단의 배후를 교란하는 한편, 삼척 주둔 제8사단 제21연대의 강릉지원을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때 해안을 지키던 전재욱 순경이 피살되어 6 · 25전쟁 첫 희생자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 776유격부대는 새벽 5시에 임원진¹⁾에 상륙하였는데, 국군 증원부대의 차단과 더불어 산간 내륙으로 침투하여 주력의 남침에 앞서 게릴라들과 제휴해 후방을 교란, 남침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이렇듯 1950년 6 · 25전쟁은 접경지인 강원도에서 최초 발발되었고 동해를

1) 성일기의 증언에 의하면 죽변으로 상륙할 예정이었으나 좌표를 잘못 읽어 새벽 5시에 임원진에 상륙했다고 하였다.

이용하여 허리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총공세를 펴던 것이다. 이 무차별 공세 속에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 든 영웅들이 있었으니, 바로 펜 대신 총을 든 학도병들이다.

학도병들이 전쟁터로 뛰어든 수밖에 없었던 6·25전쟁을 살펴보고 우리 학도병들이 얼마나 큰일을 해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교훈으로 선양하고자 한다.

1 6·25전쟁의 개관

한인(韓人)출신의 중국인민해방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편

6·25전쟁을 앞두고 김일성의 요청과 모택동의 지시에 의해 팔로군(八路軍) 중 한인 출신들로 ‘조선의용군’을 만들어 입북시켰다. 이중 팔로군 제4야전군 휘하 제55군 164사단은 만주지역에 주둔해 있는 한인들로만 구성된 단일부대로 1949년 7월 20일 입북하여 조선인민군 제5사단으로 개편되었다. 입북한 사단 인원은 10,821명이다.

제4야전군 휘하 제55군 166사단은 국민당군을 쫓아 대만해협까지 진격한 역전의 사단이며 한중 혼성 부대이다. 원래는 166사단 중 1개 연대만 한인이며 조선의용군으로 개편과정에서 중국인들을 한인으로 교체하여 1949년 7월 20일 입북시켜 조선인민군 제6사단(제13·14·15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구성)으로 개편시켰다. 사단 병력은 10,320명으로 6·25전쟁 당시 걸어 다니는 공수부대라고 불리며 미 24사단에 큰 타격을 주었고 국군 사단 대부분과 전투를 한 최강의 부대이다.

이후 김일성의 요청으로 팔로군 제156사단을 중심으로 139·140·141사단의 한인들을 모아 1950년 4월경 입북하여 약 1만 4천 병력으로 조선인민군 제7사단(제30·31·32연대와 제1사단에서 차출한 1개 포병대대로 구성)을 만들었다(이후 제12사단으로 명칭 변경). 그 외 중국인민해방군에 부대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복무 중인 한인들을 모아 1개 연대를 만들어

입북시키는데, 4사단 18연대로 서울 중앙청에 최초로 진입한 인민군이다.

이렇게 하여 모택동이 보내준 한인(韓人)으로 구성된 한인 출신 조선의 용군은 4개 사단 10개 연대로 전쟁 발발 당시 인민군 총 21연대 가운데 10개 연대 병력이다.

중국이 6·25전쟁 발발 전까지 입북시킨 63,000여 명²⁾의 조선족 부대는 전체 북한군 병력 198,380명 가운데 1/3을 차지하였다.

이에 강원도로 남침한 조선의용군 사단은 인제-홍천 방면의 북한군 7사단과 양양-강릉방면으로 남침한 북한군 5사단이다.

전쟁발발 초기전투 강원지역에서의 선전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감행되어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간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이다.

북한군의 남침이 개시된 1950년 6월 25일부터 초기 단계에서 국군은 전투력의 열세(병력은 2대1로 열세했고, 장비면에서도 국군은 대공포·전차·자주포·전투기가 전혀 없었으며, 기타 장비들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음)와 지휘체계의 결함으로 북한군에 완전히 압도되었으며, 저항다운 저항을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퇴각했다.

그러나 강원도 중부전선과 중동부전선, 동부전선에서는 서부전선과는 전세가 달랐다. 춘천전투에서는 북한군 2사단을 상대로 6사단 장병들과 경찰, 학생,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3일 동안 승리하였다. 김운한 예비역 소장은 “춘천대첩은 춘천 시민군의 승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민들의 협조에 찬사를 보냈다. 이에 북한은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더욱이 홍천 말고개전투에서도 북한군 7사단의 전차 11대가 대전차포중대원들과 육탄용사들에 의해 파괴되어 7사단 자체가 소멸되고 12사단으로 재출범하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 5사단 10연대의 남침을 국군 8사단 10연대와 21연대 일부병력이 방어하여 역시 27일이 되어서야 강릉이

2) 『조선의용군의 밀입국과 6·25전쟁』(명지출판사, 2000)의 저자 김종생은 6만 5천 명이라 주장하였다.

완전히 점령되는 등 강원도 전 전전에서는 국군이 분전하였다. 특히 정동진 주변의 945전대와 임원의 766유격부대의 허리를 찌르는 공격에도 잘 대처하여 옥계 밤재를 점령한 북한군이 6월 30일에 남하하여 7월 1일에 가서야 삼척을 점령하는 등 북한의 전략에 치명타를 입혔다.

한편, 6월 28일 새벽 인민군의 탱크가 서울 중심부에서 목격되었다. 그러나, 바로 한강을 도하하지 않고 7월 3일까지 서울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춘천전투의 패전으로 인한 수도 포위 계획 실패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춘천대첩평화기념공원

6·25전쟁 최초 해군의 옥계지구전투 승전

6월 25일 05:00시 YMS509정은 해군본부로부터 “긴급출동지시, 북한수송선단이 남침하여 옥계해안에 상륙중임. YMS509정은 긴급출동하여 격침할 것”이라는 긴급전문을 접수하였다. YMS509정은 06:00에 묵호항을 출항하여 북상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선체가 40도씩 기울어지는 악조건에서의 항해였다.

2시간 항해 후 상대선박에 1km까지 접근해 갔다. 그러자 상대선박이 포격을 가했다. 상대선박이 적선임을 파악한 YMS509정장의 즉각적인 포격지시에 따라 37mm포와 중기관총이 응사를 시작함으로써 조용하던 아침바다에 치열한 포성이 진동하였다. YMS509정 요원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정조준 사격을 계속하여 정확하게 적의 첩판에 명중하였다. 약 50분에 걸쳐 계속된 교전으로 적선은 화력과 속도가 미약해지자 북으로 도주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YMS509정도 선수(船首)에 적 포탄 1발이 명중되었으나 목선이었으므로 치명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YMS509정은 피격된 선체의 긴급수리를 위해 묵호로 귀항하여 수리를 마치고 다시 교전해역으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미 상륙을 완료한 후였고, 해

안선에는 적의 발동선 3~4척만이 있었다.

이날 15:00에 YMS509정은 옥계 북쪽 3km 지점에서 상륙중인 적을 발견하고 근거리까지 접근, 포격을 가하였다. 이때 적은 실시중인 하역작업을 중지하고 산속으로 분산 도주한 후 약 15분 후부터 박격포사격을 가해왔다. 이어 17:30에 YMS509정은 해안선에 있던 적 상륙정 1척을 완파하고 다른 발동선 1척을 노획하여 묵호항으로 입항한 다음 묵호경비부에 인계하였다.

옥계지구의 전투는 6·25전쟁에서 우리 해군이 거둔 최초의 승전으로 기록됐다. 또 동해안에서 전쟁초기 적의 선제공격을 막아냄으로써 적군의 남진속도를 지연시켰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의 해군, 육군, 경찰 그리고 대한청년단원과의 연합작전은 적을 7일간이나 밤재에 묶어 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 제5사단이 옥계-삼척을 경유하여 영덕으로 진출하는 시일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해군옥계지구전적비

강원경찰의 영월 녹전전투

강원전투경찰 제8대대 1중대장 김해수 경위(전사 후 경감·충무무공훈장 추서)는 국내 유일의 영월발전소와 상동 중석광산 등을 사수하라는 운명한 경무관의 명령을 받고 47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1950년 7월 8일 결사대는 두 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에서 동해안에 상륙하여 태백산맥에 침투했던 북한군의 유격부대와 교전하였다. 중대장을 포함한 24명의 경찰관이 전사했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채 탈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원대복귀하게 되었다. 비록 뜻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강원경찰이 단독으로 내 고장 사수를 위해 결행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부동전투의 승전과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38선 돌파 그리고 북진

계속 밀리던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8월경에는 낙동강을 경계로 하는 부산교두보의 방어선을 구축, 체계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다. 특히 낙동강 방어선 가운데 대구 북방 22km에 위치한 다부동은 대구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요충지로서, 만일 다부동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지형상 아군은 10km 남쪽으로의 철수가 불가피하고, 대구가 적 지상화포의 사정권내에 들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다부동 일대에 증강된 3개 사단을 투입, 약 21,500명의 병력과 T-34 전차 약 20대(후에 14대 증원) 및 각종 화기 약 670문으로 필사적인 공격을 해왔다.

이에 반해 이 지역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1사단은 보충 받은 학도병 500여 명을 포함, 7,600여 명의 병력과 172문의 화포 등 열세한 전투력을 극복하면서 공산군의 이른바 8월 총공세를 저지하여 대구를 고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미 제1기병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공산군의 9월 공세로 한때 국군 제1사단이 사수했던 다부동일대의 주저항선을 적에게 붕괴 당하였으나,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개시된 낙동강방어선에서의 총반격으로 다부동을 탈환하였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진두지휘 하에 1개 군단병력이 투입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UN군은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마침내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경인지역을 장악한 UN군에 의하여 보급로와 후퇴로를 차단당한 북한군은 남북으로부터의 협공으로 모든 장비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산악지대로 도피함으로써 북한군 주력은 거의 궤멸상태에 빠졌으며, UN군은 급속도로 북진을 계속했다.

1950년 10월 1일 마침내 국군 3사단 23연대 3대대 병력이 양양군 기사문리 38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아군의 북진 속도는 일일 평균 26km의 속도로 진격하였다. 특히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탈환을 목표로 전개한 평양 탈환작전은 10월 9일 38도선을 돌파한 이래 만 11일 만인 10월 20일에 국군 제1사단의 제11연대와 제12연대,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의 제5기병

연대가 동평양을,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와 국군 제7사단 제8연대가 본 평양을 각각 점령 했다. 그리고 계속 진군하여 UN군은 10월 20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 일부 부대가 압록강변에 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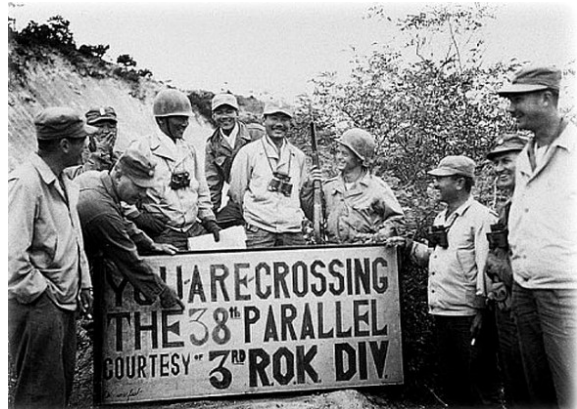
이렇게 파죽지세로 북진할 때 중국은 파병을 결정하여 1950년 10월 19일 인민해방군 제39군이 단둥(丹東), 장전하구(長甸河口), 집안(輯安) 등에서 압록강을 건넜다.

북한의 서북부지방에 진격중이던 한국군 제6사단이 압록강의 국경지역인 초산에 도착하였고, 동해안을 따라 진격한 한국군 수도사단은 청진까지 수복하고 나서 장진호와 부전호에 진격하였다.

10월 24일에 드디어 한국군 제6사단이 청천강 상류에 있는 운산에서 중공군으로 보이는 적군에 의하여 포위되었고, 이를 구원하기 위한 미 제1기병사단도 그 달 26일에 포위당해 고전하였다. 중공군의 참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군은 보급에 곤란을 겪었고, 미군은 청천강 남쪽까지의 후퇴를 명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은 북진을 계속하여 11월 21일에는 압록강 연안인 혜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인해전술’에 압도당한 국군과 UN군은 북한으로부터 철수해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또다시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나, 길어진 병참선에 미국 공군의 강렬하고 지속적인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중국인민지원군은 공세가 크게 둔화되어 UN군은 서울 남쪽 약 50km 지점의 평택과 원주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1951년 2월 UN 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했다. 차량사고로 사망한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미국 제8군사령관에 부임한 M.B. 리지웨이 장군은 UN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1월말에는 방어에서 공세로 전



‘당신은 지금 3사단에 의해 돌파된 38선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영어로 적힌 표지판을 둘러싸고 있는 한·미 장병들(국가보훈처 제공)

환해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31일 중동부전선에서는 38° 선을 횡단하여 북진을 계속했다.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의 승승장구

공군이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공군전력의 92% 이상을 소화했다. 1951년 9월 28일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를 강릉기지로 전진시켜 10월 11일부터 역사적인 단독출격으로 인제 동북방 ‘당장곡’ 공격을 필두로 인제 · 통천 · 연천 · 회양 · 고성 · 현리 · 원산 · 안변 · 신고산 등지의 도로 · 철도 · 보급물 · 집적소 · 교량 등을 목표로 총 500여 회의 출격을 감행하였다. 단독출격작전을 개시한 이후 1952년 1월 15일 미 공군이 500여 회의 출격으로도 절단하지 못한 승호리철교(평양 동쪽 10km 지점)를 단 11회의 출격으로 차단, 한국공군의 전투기량을 과시하였다.



강릉기지에서 출격을 기다리는 F-51 전폭기
(1953.2.15)

1953년 3월 24일까지 10전투비행전대는 모두 7,818회를 출격하며 격전을 치렀다. 이 출격횟수는 6·25전쟁 기간 동안 공군의 총 작전출격 횟수(8,495회)의 92%에 이르렀다. 더욱이 39명의 100회 이상 출격조종사를 배출하였는데, 최초의 100회 출격기록자는 김두만 중령이었고 최고 출격 기록보유자는 유치관 대위로 203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출격을 통해 우리공군은 건물 1,770개소, 차량 459대, 우마차 53대, 탄약 및 연료집적소 1,285개소, 철교 및 인도교 124개소, 터널 108개소, 포진지 521개소, 철도 1,014개소 등을 파괴 · 파손하였고 적병 889명을 사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전투 중 69대, 훈련 중 48대 등 총 117대(F-51D 68대)가 파괴되었고 조종사 39명이 전사 혹은 순직하였다.

휴전과 강원도 수복

1951년 중반부터 남북이 38선 주변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유엔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미국이 전쟁이전 현상에서의 휴전정책을 확정하는데 이어, 공산군측에서도 소련이 중심이 되어 1951년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중·소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전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소련이 ‘전쟁을 그만 멈출 것’을 제안했고, 유엔을 대변하는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휴전회담이 이루어졌다. 1951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휴전협정회의는 무려 25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양쪽 군대의 주둔 지역에 따라 휴전선이 그어지며 전쟁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강원도는 전쟁이전 북한으로 넘어간 영역을 수복하였다. 즉 광복 후 철원·평강·이천·통천·고성·회양·김화·화천·양구 등 9개 군 모두와 인제·양양 등 2개 군의 절반 이상이 삼팔선 이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휴전협정 후 군사분계선 이남의 양양(1읍 7면)·고성(4면)·인제(6면)·양구(5면)·화천(5면)·김화(1읍 7면)·철원(1읍 4면) 등이 1954년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의 공포로 수복되었다.

2 전쟁 후 피해상황

북한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남침한 6·25전쟁은 북쪽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남쪽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지상국 파병 16개국과 의료지원 등의 6개국 등 22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인 국제전이었다. 당시 남한을 지원한 국가는 지상군 및 해군·공군을 파견한 미국(1,789,000), 영국(56,000), 오스트레일리아(17,164), 네덜란드(5,322), 캐나다(25,684), 뉴질랜드(3,794), 프랑스(3,421), 필리핀(7,420), 터어키(14,936), 타이(6,326), 그리스(4,992), 남아프리카 공화국(826), 벨기에(3,498), 룩셈부르크(83), 콜롬비아(5,100), 이디오피아(3,518) 등 16개국이고 스웨덴(1,124), 인도(627), 덴마크(630), 노르웨이(623), 이탈리아

리아(128), 독일(의사 117) 등 6개국이 의료지원 및 시설파견국으로 참전하였다.

이렇게 남북한 26개국이 뒤엉켜 벌인 3년 1개월간의 전투로 수많은 인적·물적피해를 입었다.

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민간인 피해(<표 1> 참조)는 약 250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남한의 인명피해는 민간인 119,968명이며, 이중에서 사망은 244,663명이고 학살이 128,936명이다. 북한의 민간인 피해도 150만 명이나 된다. 또한 피난민이 320만여 명, 전쟁미망인도 30만여 명, 전쟁고아도 10만여 명이 각각 발생하였다.

〈표 1〉 남북한 민간인 피해현황

(단위 : 명)

계	남한						북한
	소계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2,490,968	990,968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1,500,000
# 피난민 320만여 명, 전쟁미망인 30만여 명, 전쟁고아 10만여 명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공(2005년 자료).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양민 학살도 대대적으로 자행되었다. 국군과 UN군의 북진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인민군 주력부대가 퇴각하며 발생한 학살이다.

함남 원산학살의 경우, 원산시 시내, 신평리 여왕산, 원산 앞바다, 원산인민교화소 등지에서 4명 1개조로 묶어 방공호에 집어넣고 집단총격으로 사살하는 방식으로 1,700여 명이 희생되었다. 함남 함흥학살의 경우는 함흥인민교화소, 충령탑 지하실, 정치보위부 지하실, 함흥 북쪽 덕산니켈광산, 반룡산 방공호 등지에서 집단 무차별 총살, 방공호의 경우 폭사, 우물 생매장, 투석 등의 방식으로 12,000여 명(납치자, 실종자 포함되지 않은 수임)의 희생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강원 고성에서는 800명, 함남 영흥에서는 1,520명, 함남 순천에서는 200명, 함남 신고산에서는 천주교도 190명, 황해 해주에서는 1,200여 명, 함북 갑산군에서는 420명, 함남 고원군 800명, 황해 수안군 1,100명 등 북한 전역에서도 크고 작은 학살이 자행되었다.

양진영 군인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군인 전사자는 한국군이 13만 7,899명, 미군이 3만 6,940명, 기타 UN군이 3,538명이며(〈표 2〉 참조),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의 정확한 전사자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표 2〉 6·25전쟁 인명피해현황

(단위 : 명)

국 명	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총계	776,360	178,569	555,022	28,611	14,158
한국	621,479	137,899	450,742	24,495	8,343
미국	137,250	36,940	92,134	3,737	4,439
영국	4,908	1,078	2,674	179	977
호주	1,584	339	1,216	3	26
네덜란드	768	120	645	-	3
캐나다	1,557	312	1,212	1	32
뉴질랜드	103	23	79	1	-
프랑스	1,289	262	1,008	7	12
필리핀	398	112	229	16	41
터어키	3,216	741	2,068	163	244
타이	1,273	129	1,139	5	-
그리스	738	192	543	-	3
남아프리카공화국	43	34	-	-	9
벨기에	440	99	336	4	1

국 명	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룩셈부르크	15	2	13	-	-
콜롬비아	639	163	448	-	28
이디오피아	657	121	536	-	-
노르웨이	3	3	-	-	-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공(2005년 자료).

* 전사/사망에는 부상, 실종, 포로 중 사망 포함.

* 한국군 포로 수치는 교환포로와 추가 송환포로를 포함한 수치임.

중국에서 발표한 중공군 인적피해의 경우,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에는 395,815명이고 『朝鮮戰爭決策內幕』에는 366,000명(전사 116,000, 부상 220,000, 행불/포로 29,000)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추정한 통계와 큰 괴리가 있다.

한국에서 추정한 중공군 인적피해는 총 972,600명(전사 148,600, 부상 798,400, 실종 3,900, 포로 21,700)이고 미국에서 집계한 총 인적피해는 123만여 명으로, 한국 추정치와도 26만여 명의 차이가 있을 정도이다. 참고로 『항미원조전쟁사』³⁾에는 중국인민해방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군사를 총 290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표 3〉 한국에서 추정한 중공군 인적피해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투손실	비전투손실
총계	972,600	369,600	603,000
사망	148,600	135,600	13,000
부상	798,400	208,400	590,000
실종	3,900	3,900	-
포로	21,700	21,700	-

3)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소, 2012, 『항미원조전쟁사』하권, 610쪽 참조.

* 출처 : 『한국전쟁피해통계집』(국방군사연구소, 1996), p.145.

- (1) 비전투손실(부상)에는 질병에 의한 입원치료자(44.7만명)를 포함.
- (2) 미국의 자료(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James P. Finley, 1983, p.88)에 의하면 총피해 123만여 명으로 26만여 명의 차이가 있음.

전쟁기간 중 한국은 43%의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휴전협정 제60조에 의거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대한민국과 UN 참전 16개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및 소련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다. 한국과 UN 참전국측은 UN 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민주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한 데 반하여, 공산군측은 오로지 주한 UN군의 철수만을 주장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같은 해 6월 회담은 결렬되었으며, 남북한은 항구적인 평화가 아닌 휴전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전국 학도병들의 참전

학도병들의 학도대 결성과 전쟁 참여

학도병은 6·25전쟁 발발부터 1951년 4월까지 대한민국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 치안유지,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혹은 단체를 뜻한다. 명칭은 학도병, 학병, 학도의용군 등으로 불린다.

개전초인 6월 27일 저녁부터 서울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28일 미명에는 한강교도 폭파되었다. 결사적으로 한강을 도하하는데 성공하여 수원에 모인 학생들 중 약 2백 명은 6월 29일 오후에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으로 ‘비상학도대’를 발족시켰다. 이 비상학도대가 학도병의 모체가 된다. 구성은 서울·경기지구에서 모여든 전국학련, 이북학련, 반공학련 출신들과 학도호국단 학생 간부들 일부로 되어 있었다.

1950년 7월 1일 대전에서 학생 약 700명이 의용학도대를 조직해서 상

당수가 군에 입대했다. 비상학도대는 7월 19일 대구로 내려갔고, 다음날인 20일 대구 광복동 동아극장에서 약 5,000명의 학생이 모여 애국학도 총궐기대회를 갖고 대전의 의용학도대와 통합하여 ‘대한학도의용대’로 확대·개편되었다.

대한학도의용대는 대구에서 학도병 모집, 피난 학생 규합, 선전대원 파견 등 군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8월 중순에 부산으로 천도하자 대한학도의용대도 옮겨가 부산에 있던 학도의용대와 합류하여 국방부 정훈부 소속의 유일한 학도조직체로서 학도의용군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후 학도병들은 안동전투, 다부동전투, 안강전투, 영천전투, 포항전투 등 대규모 전투에 투입되어 낙동강방어선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포항 학도병 71명의 분전과 장사상륙작전

1950년 8월 11일 71명의 학도의용군들이 포항여중(현 포항여고)에서 북한군 유격부대인 766부대와 치열한 교전을 벌여 48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을 입거나 포로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당시 학도병들의 분전감투로 북한군의 포항 시내 진출이 지연됨으로써 제3사단 사령부와 기타 지원부대 및 경찰, 그리고 행정기관이 무사하게 안전지대로 철수할 수 있었다.

장사상륙작전(長沙上陸作戰)은 1950년 9월 14일~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서 벌어진 상륙작전이다. 작전명 174고지라고도 한다. 9월 14일 부산항을 출발한 이후, 9월 15일 06:00에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교란 작전으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장사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이 작전은 학도병으로 구성된 772명⁴⁾이 문산호를 타고 장사에 상륙하여 7번 국도를 봉쇄하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고 철수한 작

4) 실제 인원은 786명이었다. 대원 718명, 선원 44명, 통신 8명, 대장 1명, 부관 1명 계 772명이며, 이외에도 박영선 고문 외 2명, 통역 1명, 해군헌병 5명, 진성호 외 3명, 미군안내 1명 계 14명으로 총 786명이다.

전이다. 인천상륙작전과 양동작전으로 실시되어 양동작전으로서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한 학도병을 제외하면 모두 행방불명 상태의 작전이었다



장사상륙작전시 문산호 모습

전국 학도의용대 대원수

육군본부에서 정리해 밝힌 6·25전쟁에 참가한 각 도별 학도의용대 대원수를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은데 강원도는 6,500명이 참여하였다. 전사에 기록된 지역 및 학교별 학도병을 정리한 것 중 강원도 부분에는 춘천사범학교와 태백중학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표 4> 대한학도의용대 대원수(1951년 4월 현재)

출 신 지	인 원	출 신 지	인 원
서울특별시	6,700	전라남도	23,800
경기도	23,500	경상북도	65,000
충청남도	42,000	경상남도	56,000
충청북도	21,500	강원도	6,500
전라북도	27,000	제주도	3,000
합 계			275,200

* 육군본부, 『6·25전쟁시 학도의용군』, 70쪽 <도표 3> 인용.

<춘천사범학교>

1950년 6월 26일 학생 209명이 포병 제16대대에 입대하여 춘천과 인제 지역에서 전투에 참전했고 15명이 전사했다.

<태백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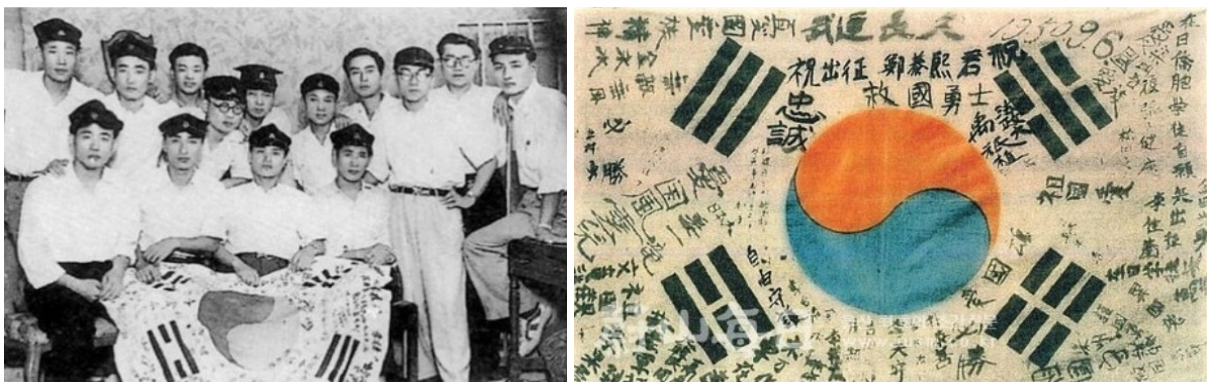
1951년 1월 14일 학생 126명과 교사 1명이 제3사단 23연대에 입대하여 현리와 가칠봉 등등 많은 전투에 참전했고, 18명이 전사했다.

이처럼 휴전이 될 때까지 학생 275,200명이 대한학도의용대 대원이 되어 전투참전, 치안활동, 가두선전, 후방선무공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전사에 나오지 않는 많은 학도병의 활약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재일학도의용군 참전

일본에서도 조국의 6·25전쟁 상황을 전해들은 재일동포 청년들은 조국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참전을 결정하게 된다. 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전쟁 참전을 희망했던 재일동포 청년들은 18세부터 45세까지 다양했다. 모두가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만 약 120여 명, 오사카에서는 80여 명, 그리고 나라, 고베, 교토 등에서 약 1,000여 명의 지원서가 접수되었다.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선발된 총 642명의 재일동포들은 미 제7사단에 소속되어 인천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갑산 해산진 탈환 작전, 백마고지 전투 등 한반도 일대 각지 전투에 참전하여赫赫한 공을 세웠고 나중에는 재일학도의용군 단일부대인 3.1독립보병대대로 활약하다가 중공군 개입이후 해산되었다.

재일학도의용군의 6·25전쟁 참전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해외동포 참전 사례보다 무려 17년이나 앞서는 것으로,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동경에서 출정식 후 기념 모습과 출정에 앞서 태극기에 싸인을 한 모습(우)

4 영동지역 학도병들의 참전

6·25전쟁 시 최초 학도의용군 강릉학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자, 강릉에 본부를 둔 국군 8사단 10연대가 북한군 5사단 10연대를 방어하였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8사단이 밀리던 초기전투에서 강릉학도와 대한청년단원, 서북청년단원, 경찰 등도 국군을 도와 최선을 다해 방어하였다.

특히 6월 25일 전쟁발발 첫날부터 강릉사범학교 학생 34명이 오전 10시경 교정에서 소대를 조직하고 8사단사령부에 입소하여 1분대는 경비, 2·3분대는 포탄 및 탄약을 싣는 적재작업을 하였다. 강릉상업중학교와 강릉농업중학교 학생들도 8사단사령부에 가서 군용트럭에 탄약상자와 군수품을 운반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고 26일에는 사천지역까지 가서 위생병을 도와 부상병을 보살피는 등 8사단사령부를 지원한 사실은 6·25전쟁 발발 최초의 학도병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전선에 나아가는 학도!

전쟁 발발 3일간의 전투에서 강릉이 함락되자, 학생들은 제각각 흩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강릉지역의 학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였다.

대구에서는 3사단 22연대에 영동지역 학도 36명을 포함, 학도의용군 57명이 배속되었다. 이들 57명(강릉상업중학교 11명, 강릉농업중학교 16명, 강릉사범학교 6명, 강릉성심중학교 2명, 춘천중학교 1명, 춘천농업중학교 1명, 삼척공업중학교 1명, 대학생 3명, 타도 중학교 16명)은 ‘대한민국 학도의용군 중대(돌격대)’라고 명칭되었다. 포항전투를 비롯하여 38선 돌파, 원산전투를 치렀고 이후에는 대전차포중대가 되어 실질적인 군전력에 기여하였고 1951년 7월 초부터는 특수공격대대에 편성되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전황 속의 강릉공산치하에서 반공학도들의 활약도 있었다. 홍순길(강릉중 출신의 대학생), 최오규(강릉중 출신의 대학생, 김동훈(강릉상고 1학년), 박준열(강릉사범 1학년, 여) 등의 구국결사대는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가 방송하는 전파뉴스를 청취하여 전황을 시민에게 알리다가 체포되어 홍순길을 제외한 모두가 총살당하였다.

학도병으로 구성된 871유격대(제1경비대대, 일명 정원부대) 부대원으로의 활약이 이어졌다. 이 871부대에는 강릉상업중학교 15명, 강릉사범학교 11명, 강릉농업중학교 10명, 주문진수산중학교 9명 등 총 4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오대산전투, 북한군 10사단과 길원팔부대와의 보현산전투, 도계전투, 지리산전투, 덕유산전투, 거제도 UN포로수용소 폭동 진압, 포로교환작전 등을 수행했다.

한편 북진 당시 제1군단 지휘부가 강릉에 주둔하자 강릉사범학교, 강릉상업중학교, 강릉농업중학교, 강릉여자중학교 등 100여 명의 강릉지역 학생들이 자원입대하여 함경북도까지 진군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남학생의 경우 헌병보조로 치안유지, 포로수용소 경비, 물자관리 및 경계임무, 학도호국단 조직 및 계몽활동, 사령부 외곽경비 등을 수행하였고 여학생은 1군단사령부 참모부 및 직할부대 소속으로 민심여론 정보수집 및 참모부 업무지원 활동을 하였다.

아군이 북진한 후 강릉에 북한군 1개 대대 규모의 패잔병이 침투했을 때는 경찰을 도와 치안유지를 하고 있던 강릉과 주문진 학도경찰 80여 명이 경찰과 대한청년단원과 함께 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후 중공군 개입 때에는 국민방위법이 발효되자, 강릉지역 학교의 학생들은 배속장교를 따라 울산에 가서 20·26·32교육사에 가서 훈련도 받고 입대도 하기도 하였다.



1군단 중대장과 학도의용군
(함흥 발용산, 김홍렬 제공, 1950)

제10전투비행전대가 강릉에 창설되었을 때는 강릉여고등학교 학생들이 비행장으로 수시로 달려가 격려와 축하 그리고 위로도 하였으며, 국군 제5·6·7·8·11사단이 강릉 주변지역과 북쪽 지역에 주둔했을 때도 수시로 달려가 합창과 연극 등으로 장병들을 위문하기도 하였다.



손흥준 대위 100회 출격 축하 및 환송(좌) · 11사단 방문 위문공연 후 기념하는 강릉여고 학생들

1950년 10월 1일 영동지역의 삼척공업중·북평중·강릉상업중 등 7개 중학교 학생 75명은 해군 목호경비부에 자원입대하여 해군학도병을 조직하였다. 학도병이 입대 한지 10일 만에 북한군 패잔병이 목호경비부를 기습 공격하자 학도병들은 군복도 입지 못한 교복 차림과 최소한의 무기로 이들을 상대하였다. 1951년 1월 21일 북한군 제808유격부대 약 300여 명이 옥계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해군학도병은 옥계면 석병산에 매복하고 있다가 북한군을 격퇴하고 유격부대장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해군학도병은 이밖에도 북한군 및 남파 불순분자들의 방화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방지와 후방의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패잔병을 색출하고 토벌하는 작전에 참여하는 등 많은 작전에 투입되었다.

한편 1951년 1월 14일 123명의 태백중학교 학생들이 경북 봉화에 있던 3사단 23연대에 입소하여 23연대 학도중대로 편성되어 참전하였다. 학교 복교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복교령 사실을 늦게 받아 정식 군번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였으며, 일부는 특공대 교육을 받고 특공대에 편성되기도 하였다. 특공대에 편성된 학도들은 간성 쑥고개전투, 214고지탈환전투,

748고지전투, 가칠봉전투, 김화지구 전투 등에서 임무 수행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1955~57년에 대부분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123명 가운데 18명이 전사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3사단 학도병들이 북진 중에 묵호에 주둔하고 있었던 1950년 9월 30일에 3명의 여학생들이 여자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 이들은 묵호 출신으로 서울 성신여자중학교 5학년에 재학 중 6·25전쟁을 당해 고향에 돌아왔던 라미옥(羅美玉), 라덕자(羅德子) 자매와 친구인 묵호여자중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유양희(柳洋姬)였다. 처음에는 학도병대원들과 함께하면서 부상병을 간호하다가, 나아가 학도병들의 양말이나 러닝셔츠까지 세탁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38도선의 회복지구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선무공작 활동이 이들의 주요한 업무가 되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 3사단 23연대에서 훈련받을 때의 모습



제3사단 학도의용군 중대, 라덕자(좌)와 유양희(우) 모습
(『한국전쟁기록사진집』)

맺음말 - 참전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계승하자

3년 1개월 동안 치러진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이한 남북한 국민들도 같은 백성이거니와 한반도를 벗어나 타지에서 항일독립운동하던 분들도 우리 백성들이다. 그런데 만주의 항일독립투사들은 모택동에게 이용당하여 장개석 국민당 군인들을 만주

에게 몰아내고 끝까지 대만까지 추격하여 모택동 공산당에게 만주를 헌납하였다. 그에 대한 대가로 중국인민해방군에 편입되어 잘 살 줄 알았지만 전쟁기간 동안 약 10만여 명(중공군 개입시 통역원 포함)이 한반도 전쟁에 투입되어 동족에게 총을 들이대었으니, 이보다 더 슬픈 전쟁과 민족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학도 귀교령이 내려져서 3사단 22연대 소속 학도의용군 대표들이 귀교를 요구했을 때, 3사단 22연대 김응조 연대장이 한 말은 “학도의용군 제군들이 22연대에 배속되어 포항전투를 시작으로 **그간 이룩한 전공은 6·25전사에 길이 남을 만큼 빛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 학교로 돌아간다면 이제까지 끌고 다니며 쏘던 대전차포는 누가 맡을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1개월 이내에 백두산 두만강까지 진격하여 그곳에 통일의 깃발을 꽂는 데 있다. 그리고 나서 제군들이 **고향으로 학교로 돌아갈 그때에 여러분들의 가슴 가슴에는 빛나는 보람과 영광의 훈장이 달리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참고 중대에 돌아가 연대장의 이 뜻을 학도의용군들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결국 연대장의 ‘1개월 이내 통일의 깃발을 꽂는다’는 말씀에 휴전될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학도병! 1개월 이내가 결국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내 나라와 내 고장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렸던 6·25전쟁의 영웅 학도병의 정신은 오늘날 5천 년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부강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이제 6·25전쟁에 참전했던 학도병들은 당시 평균 17세라 하였으니, 생존하신 분들은 대개 85~88세에 해당될 것이다. 이미 많이 늙었지만 이제라도 학도병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전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더불어 다양한 선양 행사를 통하여 목숨 대신 남기고 가신 명예를 현창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다.



제1주제 : 태백학도병의 6·25 참전과 현대사회에서의 의의

- 발표 : 이상균 교수(강릉원주대학교)
- 토론 : 김정현 박사(강원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태백학도병의 6·25 참전과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의

이 상 균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
1. 머리말
 2. 6.25 개전 시 강원지역 현황
 3. 학도호국단 창설과 학도병 결성
 4.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
 5. 맺음말 : 현대사회에서의 의의
-

1 머리말

6.25전쟁은 개전 직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등 북한군에 비해 남한군 전력의 열세로 시작된 전쟁이었다.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고자 서울 시내 각 학교의 학도호국단 간부 학생 200여 명이 수원에 모여 ‘비상학도대’를 조직하고, 참전을 결의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병¹⁾은 학생들이 애국심의 발로로 조직한 자발적 의군(義軍)이었다. 이는 세계 전사(戰史)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간행한 『6.25전쟁 학도병』(2012, 15~16쪽)에서 공표하고 있는 개념에 따르면 학도병을 지칭하는 용어는 학도의용군·학도대·의용대·의용군·학생의병·학도의병 등 다양하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 하나하나의 개념을 차치하고 태백중학교 참전 학도들에 대한 기념비나 추모제 등에 사용된 ‘학도병’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 당시 병력보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군은 전력을 보강할 수 있었다. 학도병의 참전은 전쟁 초기 급박했던 전황을 반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후퇴하는 국군을 도와 북한군과 싸웠으며,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면서 국군이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학도병은 낙동강 전투, 포항여중 전투는 물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군에서 양동작전으로 실시한 장사리 상륙작전 등 굴지의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국군과 연합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학도병은 6.25전쟁 개전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고 1951년 3월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의 「복교령」에 의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갔다. 그러나 학도병들 중에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현역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도병 참전은 실질적으로 1950년 6월 한강 방어선 전투부터 시작되어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계속되었다. 학도병들은 정규작전에 투입된 전투 임무, 피난민 구호 및 북한군 보급 작전이나 통신 교란 활동 등 비정규전 임무, 후방 공비토벌이나 치안유지를 위한 공비토벌 임무, 수복지구에서의 대민 선무공작활동이나 사기진작 활동을 펼치는 정훈 공작 선무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강원도에서도 많은 학도병들이 유격대를 조직하고 북한군 패잔병의 퇴로 차단과 소탕작전에 참가했다. 일본에서 참전한 재일학도병까지 있었다. 6.25전쟁 당시 강원지역 출신의 학도병의 수는 육군본부에서 1951년 4월 기준으로 6,500여명이라 기록해 놓고 있다.²⁾ 춘천사범학교·춘천중·춘천농업중·강릉사범학교·강릉농업중·강릉상업중·주문진수산중·강릉여중·횡성중·태백중 등 도내 많은 학교의 학생 등이 학도병으로 참전하였다.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1951년 1월 9일 학생들이 교정에 모여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참전을 결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27명의 태백

2) 이재 외,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육군본부, 1994.

중학교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이들은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 학도중대로 편성되어 학도중대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했다. 참전이 후 「복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정규군에 편성되어 특공대의 임무를 띠고 휴전직전까지 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본 글에서는 강원도에서 참전한 여러 학교의 학도병 중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과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6.25 개전 시 강원지역의 전황과 학도호국단 창설 및 학도병 결성과정을 살펴보고,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맺음말에서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이 갖는 현대사회에서의 의의를 제시하여 보았다.

2 6.25 개전 시 강원지역 전황³⁾

우리나라는 광복 후 미·소의 38선 분할과 신탁통치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다.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를 택했고, 남한은 미국식 자유주의 체제에 기초해 정부를 수립했다. 남·북은 광복 직후 이념적 차이에 의한 적대적 관계에 놓였다. 특히 강원도는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다른 지역 보다 첨예하게 남·북이 대립되었다.

소련군정은 남한에 있던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노당’)을 통해 남한정부를 전복하는 방법으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략으로 남노당은 1946년 대규모 폭동과 노동자 파업을 일으켰다. 1948년에는 게릴라 활동을 펼쳐 남한 총선거를 방해하고 내부 봉기를 꾀하는 전복전 전략을 시행했다. 북한으로 월북한 박헌영과 남노당 지도부는 ‘강동정치학원’에서 남한 출신들로 구성된 유격대[빨치산]를 편성해 태백산맥을 이용, 10여 차례에 걸쳐 남한에 침투시켰다. 빨치산은 산악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남한의 행정기관·경찰서 등을 공격하는 한편 북한의 추종자들을 규합하고자 하였다. 빨

3) 2장은 『강원도사-21권:전란』(2017, 강원도사편찬위원회)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치산은 지리산·오대산·태백산 등지에 유격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관공서 등을 공격하는 등 남한을 혼란 상태에 빠뜨렸지만 남한 군·경에 의한 적극적인 토벌작전으로 세력이 위축되었다. 더욱이 빨치산들은 민가를 약탈하는 등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 민중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다.

남로당의 남한 전복전 전략이 진행되는 동안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에게 북한의 무력통일 전략을 지원하고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탈린은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당분간 빨치산에 의한 전복전을 꾀하되 북한군의 증강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스탈린은 북한군의 남한 공격을 허락해달라는 김일성의 수차례 요구를 시기상조라며 제지했다. 스탈린은 이때까지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의식하고 있다.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은 소련과 공동으로 미국을 제지하는 동맹을 맺고자 1949년 말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1950년 2월 스탈린과 중·소우호동맹을 체결하였다. 이 동맹은 양국을 공격하는 제3국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즉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이었다. 이 군사동맹으로 자신감을 가진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무력통일을 승인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고, 전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고문단 요원과 전쟁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 1950년 3월말부터 4월에 걸쳐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과 전쟁 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5월부터 소련군사고문단은 북한의 남한 공격작전계획을 수립해 북한군 지도부에 넘겼다.

이 남침작전계획은 북한 제1군단 6개 보병사단(제1·3·4·6·13·15), 1개 전차여단(제105), 1개 경비여단 등을 투입해 서울 북방에서 국군을 포위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한편, 중동부에서는 북한 제2군단 3개 보병사단(제2·12·5)과 1개 경비여단을 투입해 조기에 춘천·홍천·원주를 점령한 후 수원으로 진출해 퇴각하는 국군 주력을 포위해 섬멸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서울 방향이 주 공격로이긴 했지만, 북한 제2군단이 강원도의 주요 거점을 장악한 후 신속히 수원으로 진출하고자 한 것은 국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함으로써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고자 한 전쟁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강원도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은 각각 원주와 강릉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제6사단 제7연대와 제6연대가 각각 춘천과 홍천 북방을 담당하고 있었고, 원주에는 제19연대와 사단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다. 제6사단은 춘천 방어를 위해 제7연대에게 콘크리트 유개호를 축성해 적의 공격에 대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된 정부의 예산이 적어 제6사단은 춘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일부의 유개호만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제8사단 제10연대와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있었고, 제21연대는 삼척에 연대본부를 두고 예하 부대들을 태백산맥 주변에 분산시켜 공산계릴라 토벌작전에 임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2사단과 제12사단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대규모 포병사격 후에 각각 춘천과 원주 점령을 목표로 공세를 감행했다. 38선 경계진지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들은 과거 38선 충돌 전투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공격임을 감지하고 저항하다가 분산 철수했다. 북한군의 병력도 많았지만 당시 첨단무기였던 북한의 SU-76자주포 공격을 방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7연대는 전차포로 북한의 자주포를 명중시켰지만 소용이 없었다. 북한군은 이날 14시 경 춘천 북방의 옥산포에 진출해 당일 내로 춘천을 점령하고자 했다.

이 전투에서 제7연대 대전차포 소대를 지휘하고 있던 심일 중위는 소대원들에게 휘발유병과 수류탄을 준비시키고 숲속에 대전차포를 매복시켰다. 근거리에서 북한의 자주포를 사격한 후 육탄 공격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자주포 3대를 파괴하여 진격을 수 시간 지연시켰다.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그날 오후 부대를 소양강 남안으로 재배치하여 결전을 준비하고자 소양강 북안에 있던 5천발의 포탄을 후송하였다. 다음날 북한군은 자주포를 투입해 정면 공격하는 한편 소양강 모래톱을 이용해 보병을 도하시켜 춘천에 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소양교에서 다시 심일 중위에 의해 북한군 자주포 3대가 파괴되었고, 모래톱을 통해 도하를 기도하던 북한군 보병들은 제7연대를 지원하던 제16포병대대의 사격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제7연대는 6월 26일 아침

원주에서 증원부대로 올라온 제19연대와 함께 격전을 벌이며 북한군의 소양강 도하를 저지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7일 제19연대와 일부 포병이 홍천 방면에서 위기에 처한 제2연대의 지원을 위해 이동하였다. 국군 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군이 사방에서 결사적인 공격을 가해옴에 따라 이날 정오 제7연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북한군이 소양강 남안으로 진출하자 제7연대는 홍천 방면으로 철수했다.

제7연대의 우측 인제-홍천 축선을 방어하고 있던 제2연대는 산악지형을 활용해 큰 전과를 올렸다. 제2연대는 첫날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부대가 분산하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26일부터 흩어진 부대를 정비하며 지형을 이용해 북한군의 돌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28일에는 사단장 김종오 대령의 명령에 의해 춘천으로부터 제19연대가 도착함으로써 방어력이 강화되었다. 제2연대와 제19연대 3대대는 가장 위협적인 적 자주포의 공격을 막기 위해 대전차특공조를 편성해 대응했다. 이 두 부대의 특공조들은 ‘큰말고개’라 불리는 곳에 매복하였다가 북한군 자주포 8대를 파괴시켰다. 이 공격으로 북한군의 홍천 진출을 3일간 저지시켰다.

제6사단의 춘천·홍천 방어는 북한군 작전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했다. 북한군 제2사단은 개전 당일 춘천 점령을 목표로 했으나 2일이 늦어졌고, 북한군 제12사단은 계획보다 3일이 늦은 6월 30일에야 홍천을 점령함으로써 서울 동남방과 수원에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했던 작전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심일을 비롯한 제6사단의 춘천·홍천 방어전투는 북한의 남침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군의 저력을 보여 준 것이었다. 특히 춘천 전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개전 당일 춘천 북방 내평리 지서에서 후퇴하지 않고 지서를 수 시간 동안 사수하다 전사했던 노종해 경위(경감 추서)이하 12명의 경찰관과 호국단원 또한 제7연대가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벌여준 살신성인의 영웅들이었다.

개전 초기 동해안에서 강릉·삼척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국군 제8사단은 38선 전면에서 북한 제1경비여단과 제5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뿐

만 아니라 주문진·정동진·임원진 등에 해상으로 기습 상륙한 수천 명의 북한 게릴라들의 공격을 받아 곤경에 처했다. 제8사단은 다른 사단들보다 1개 연대가 적은 2개 연대를 가지고 광범한 지역을 방어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성이 사단장은 병력들을 강릉으로 집결시켜 집중 운용하면서 어떻게든 중요 지역인 강릉을 사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병력과 화력의 열세에 밀려 부대를 일단 대관령으로 철수시켰다. 제8사단은 강릉 탈환을 위한 역습을 계획했으나 전황이 악화되어 원주를 거쳐 제천으로 철수했다. 제8사단은 병력과 무기의 열세로 강릉·삼척을 방어하지 못했으나 죽령·풍기·안동을 거치면서 북한의 남하를 지연하는 전투에서 선전했다.

북한군은 지상남침과 함께 함정을 동원하여 강원도 옥계와 삼척 임원리 등에 상륙했다. 북한 제5사단의 남침을 돕기 위해 함정에 특수훈련을 받은 게릴라군을 태우고 남하했다. 남한 해군은 묵호에 정박해 있던 YMS 509호정을 출동시켜 북한함정 1척과 교전을 벌였고, 옥계에서 상륙중인 북한군을 발견하고 포격전을 감행했다. 북한군은 하역을 중지하고 도주했다. 옥계해전에서 해군은 북한함정 PGM 1척과 상륙정 1척을 물리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1950년 6월 27에는 미 해·공군의 참전이 결정되어 미 극동해군이 한국 지원전대를 편성하고 해역 초계, 북한군 상륙저지, 함포지원, 철수작전 지원 등 해상지원 전투를 수행하며 제해권을 장악해 나갔다.

한편 전쟁발발 당시 남한 공군은 북한의 공군력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으므로 남한에 비해 공군력이 월등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공군을 전쟁에 투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남한 공군은 미군이 지원한 F-15전투기를 일본에서 가져왔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지상군 지원 작전 등을 수행했다. 남한 공군은 정찰, 전투기 유도, 근접 항공지원 및 상륙 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지상군의 작전을 도왔다.

전쟁이 발발하자 군인뿐만 아니라 강원경찰도 전투에 참전하였다. 강원경찰은 전쟁발발 전부터 공비토벌을 주도해 왔고,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을 도와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국군 6사단이 춘천에서 철수하자 북한군과 맞

서 싸웠고, 삼척경찰서 부대는 국군 제8사단이 강릉에서 제천으로 철수하자 제8사단 공병대대 등과 연락을 유지하며 북한군 제945부대 등을 저지하였다. 강원경찰은 남하하여 낙동강지역 최후 방어선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영일군의 청하전투, 포항지구 전투, 청송전투, 대구지역 보현산 전투, 안강전투 등에 참전하여 국군을 도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군·경만이 북한군과 전투를 치른 것은 아니었다. 개전초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자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도병이 조직되어 전선에 투입되었다. 군의 지휘를 받는 학도병은 전투에 참여하였고, 이외에도 경찰의 지휘를 받는 학도경찰대가 창설되어 공비소탕작전과 치안을 도왔다.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용군에 입대하여 조국수호에 앞장섰다. 이들은 정규 군인에 비해 훈련이 부족한 상태로 전선에 투입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그럼에도 학도병은 개전초기부터 참전하여 국군의 북진과 중공군의 대공세에 의한 전투까지 모든 전투에서 애국열을 불태웠다. 그리고 대한청년단과 청년경찰단이 조직되어 고향을 수호하였다.

3 학도호국단 창설과 학도병 결성

6.25전쟁이 발발한 때는 정부수립과 창군(創軍)이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국군의 군사력은 북한군에 비해 매우 열세였다. 그러므로 초기 전황은 남한에게 극히 불리하였다. 나라가 전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학생들은 주저 없이 구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를 ‘학도의용군’(학도병)이라 한다. 1959년 공포된 「병역법」에서는 학도의용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도의용군’이라 함은 1950년 6월 29일 이후 학도병[재일동포학도병 포함]으로 육·해·공군 또는 연합군에 예속되어 1951년 2월 28일 해산할 때까지 근무한 자로서 전투에 참가하고 그 증명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단 전상(戰傷)으로 인하여 중간에 나온 자도 포함한다.

「병역법」에서는 학도의용군을 전투에 참가한 학생으로 국한하였으며, 현역지원자는 제외시켰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정의와 달리 육군본부에서 1994년에 발간된 『한국전쟁 시 학도병』에는 학도의용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시부터 1951년 4월까지 대한민국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치안유지·간호활동·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혹은 단체를 뜻한다. 단, ‘재일학도병’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학생신분으로서 6·25전쟁 발발 시로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 또는 연합군에 지원입대하거나 개인의 자격으로 지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를 뜻한다. 아울러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칭호는 ‘학도의용군’, ‘학도병’, ‘학병’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학도의용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⁴⁾

육군본부에서 제시한 학도의용군 기준은 개전시기부터 「복교령」에 의해서 해산된 1951년 4월까지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지원한자들을 학도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이전에 학도병의 전신이라고 할 학도호국단이 먼저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 정부에서는 정규군 병력으로 국가 방위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예비 병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1948년 11월 군복무를 지원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호국군을 창설했다. 호국군은 「국군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창설했다. 당시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국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 편성돼 있었다. 호국군은 예비군의 신분을 유지하고, 거주지 연대에 소속되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수행하였다. 호국군은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된 직후인 1949년 7월에 5개 여단, 10개 연대로 확충됐고, 병력은 2만 명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국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도호국단을 결성한다. 문교부에서는 학도호국단 조직을 위하여 1948년 12월부터 각 중

4) 이재 외, 『한국 전쟁 시 학도병』, 육군본부, 1994, 17~18쪽.

등학교의 학생간부 2,400여 명을 선발하여 중앙학도훈련소에 입소시켜 단기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각급학교의 학도들을 지도할 교관이 없었다. 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체육교사 387명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시켜 군사에 관한 지식과 훈련을 받게 한 뒤, 육군소위로 임명하여 당해 학교에 배속하였다. 1949년 1월 「학도호국단조직요령」을 공포하고, 국방부 직할로 호국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제101여단 등 4개 여단을 창설하고 지역별로 10개 연대를 편성하여 도·시·군·면의 각 단위 대에도 현역 장교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용산에 호국군 간부훈련소를 설치하였다. 중등학교는 2월 중에, 대학은 3~4월 중에 그 결성을 완료하였다. 1949년 4월 23일 지역별로 조직을 완료한 학도호국단은 서울에서 중앙호국단 결성식을 하고 호국단의 대표가 전서문을 낭독했다.

“우리는 화랑도의 기백과 숭고한 3.1 정신을 계승 발휘하여 반민족적인 행동과 반국가적 상을 철저히 부셔 국토통일과 조국방위에 결사 헌신 하겠다” 5)

이와 동시에 문교부내에 학도호국단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1949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186호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이 공포되면서 학도호국단은 공식화된다. 학도호국단은 중앙 및 지방별로 조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대학 포함) 학생과 교직원을 단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학도호국단의 등장은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안호상은 취임 전부터 여러 우익단체와 우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1949년 「관보」의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국가기록원)

5) 「사만학도참집 중앙학도호국단결성」, 『경향신문』, 1949.04.23.

새로운 국가를 세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민주의(一民主義)⁶⁾를 중심으로 국민의 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학생조직을 만들 것을 주창하였고, 그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군사훈련, 학도호국단 조직 및 국립 학도호국단 간부훈련소 설치와 간부훈련 등을 교육정책과 함께 제시하였다.⁷⁾

중앙학도호국단의 총재는 대통령이, 단장과 부단장은 문교부 장관과 차관이, 서울시와 각도 단장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각 학교 단장은 대학 총장·학장·학교장이 맡았다. 그 결과 1949년 말까지 전국 중학교 이상 학도호국단은 947개에 달했고, 그 수도 45만에 이르렀다.⁸⁾

학도호국단의 활동은 반공·애국 웅변대회, 체육행사와 반공 쫓기대회 등이 주였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학도들은 자진해서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나갔다. 당시 서울 시내 각 학교의 학도호국단 간부 학생 200여 명이 수원에 모여 ‘비상학도대’를 결성한 것이 출발점이 됐다. 이들은 처음엔 후방에서 피난민 구호와 전쟁의 공포를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선무 심리 활동을 담당 했다. 많은 학생들은 후방에서의 임무 수행만으로는 의분을 달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현역 입대를 지원해 나갔고, 나머지 학생들도 국방부에 학도만으로 전투부대를 구성해서 일선에 나설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고위 인사들은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도들의 참전을 만류하면서 정훈국의 지도에 따를 것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학생들은 전쟁터로 직접 뛰어들게 된다. 1950

6) 일민주의는 인간주의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민족주의로서 5가지 원칙인 첫째, 바른백성 곧 한밤살[大學生]으로서의 한백성주의, 둘째, 백성통일(百姓統一)으로서의 한백성주의, 셋째, 세계한백성[世界一民]으로서의 한백성주의, 넷째, 만백성다같이[萬民同一]로서의 한백성주의, 다섯째, 백성 첫째[一民第一]로서의 한백성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7) 이상현, 「경기·강원지역 학도병의 조직과 활동」,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5쪽.

8) 연정은, 「감시에서 동원으로, 동원에서 규율로-1950년대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2004, 206~209쪽.

년 7월 1일 학생들은 대전에서 대한학도의용대를 스스로 조직하여 실전에 참여했다. 중학생 소년에서 장성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도병의 이름으로 실전에 참여한 학도들은 당시 대략 2만 7,700여 명이었고, 후방지역 또는 수복 지역에서 선무활동에 종사한 학도병은 무려 2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⁹⁾

개별적으로 현지 입대를 지원하여 국군 정규 부대의 장병으로 참전하는 학도들이 줄을 이었으며, 상당수의 여학생들도 간호원으로 출정하였다. 학도의용병들은 대구로 내려가 다시 한 번 조직된 다음 국군 10개 사단과 그 예하 부대에 편입되어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급도 군번도 없이 백의종군하는 가운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 가운데 약 700여 명의 학도병들은 7월 중순 부산에서 유엔군으로 편입되어 일본에 건너가 훈련을 마친 다음 9월 15일에 개시된 인천상륙작전에 정규 부대원으로 참전하였다.

또한 국군 제3사단 예하의 22연대와 26연대, 국군 제1사단 예하의 15연대는 7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보충병의 대부분을 학도병으로 채웠고, 8월 초순 대구에서 새로이 편성된 국군 25연대도 병력의 대부분을 학도병으로 채웠다. 이들 부대에 들어간 학도들은 기계·안강·다부동·포항 등 여러 곳에서 숭한 희생을 입어 가며 조국 수호의 초석이 되었다. 8월 초 대구에서 육군본부 정훈감실 산하에 조직된 학도기간대(學徒基幹隊) 약 1,500여 명은 곧이어 밀양에서 창설된 국군 유격부대에 편입되었는데, 이들은 적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학도병들은 그 밖에도 공비의 출몰이 빈번하던 38선 이남의 취락지구 및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서 주민들에 대한 선무활동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일부 학도병들은 포술훈련을 마친 다음 북진포병대를 조직하여 국군 제7사단 포병단과 함께 종군하면서 개성·평양·순천을 거쳐 덕천(德川)까지 진격하였다.¹⁰⁾

최근 6·25전쟁의 잊혀진 영웅들인 학도병의 공훈을 상기하기 위해 학도병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상영되기도 했다. 포항여중 전투를 주제로 한 <포화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3, 1970.

10) 남상선·김만규, 『6.25와 학도병』, 1974.

속으로>와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상륙작전을 주제로 한 <장사리:잊혀진 영웅들>이다. 포항여중 전투는 1950년 8월 11일 북한군 12사단과 766 부대가 포항방면을 공격하자 포항여중에 있던 학도병 71명이 이에 맞서 치열한 사투를 벌인 것이다. 포항여중 전투에서 학도병의 피해는 전사 48명, 실종 4명, 전투 초기 후송된 부상자가 6명, 포로가 된 사람이 13명이다. 이 중 포로로 잡힌 학도병에서 3명은 전투 직후 탈출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끌려간 10명 중 8명이 기회를 틈타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포로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후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학도병은 3사단의 포항탈환 이후 다시 합류하게 된다.

장사리 상륙작전은 작전명 174고지라고도 한다. 대한민국군의 학도병으로 구성된 772명이 문산호를 타고 장사에 상륙하여 국도 제7호선을 봉쇄하고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고 철수한 작전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실시되었다. 1950년 9월 14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9월 15일 새벽 6시에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원래는 8군에 떨어진 명령이었으나 인민군 복장을 입고 특수 작전을 해야 하는 사정상 북한군과 외모가 비슷한 남한 학도병에게 작전을 맡긴 것이다.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래는 3일간 상륙한 뒤 귀환할 예정으로 총기 등의 물자도 3일치만 지급되었다. 그러나 문산호가 좌초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총알과 식량이 부족해진 가운데에서도 7번국도 차단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고립된 학도병들을 구출하러 조치원호를 보냈지만



영화 <포화 속으로> 포스터



영화 <장사리:잊혀진영웅들>
포스터

일부는 승선하고, 승선하지 못한 학도병들은 전선에 남아 전투 중 북한군에 의해 대부분 전사하였다.

강원도에서도 많은 학도병들이 유격대를 조직하고 북한군 패잔병의 퇴로 차단과 소탕작전에 참가했다. 일본에서 참전한 재일학도병까지 있었다. 춘천중 · 춘천농업중 · 강릉사범학교 · 강릉농업중 · 강릉상업중 · 주문진수산중 · 강릉여중 · 횡성중 · 태백중 · 정선초등학교 · 기타 20여 개교 학생 등이 학도병으로 참전하였다.

1951년 3월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저지하고 전선의 균형과 안정을 회복하자, 피란처를 찾아 남으로 내려갔던 국민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생업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의 앞날을 짊어질 청년학도들은 시급히 학원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문교부는 전국에 흩어진 학생들에게 「복교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원도 대부분의 학도병은 3월 16일 홍천에서 무기를 놓고 군복을 벗게 됐다. 그러나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오히려 군번을 받고 정규군에 편성되어 휴전직전까지 참전해 임하게 된다.

4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1951년 1.4후퇴 이후 결성되었다. 북한군 공세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국군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북진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다. 태백지역에도 이러한 전황은 알려졌다. 태백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은 북한군 치하에서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었다. 이에 태백중학교 학생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학도병에 지원하고자 결의하였다. 태백지역 학생들은 포항지역에서 지원한 학생들로 구성된 학도병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사실 등 전국 학도병들의 참전상황과 활약상을 이미 접하고 있었고, 자신들도 이대로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1.4후퇴 이후 후방으로 이동하여 학

도병에 지원하자고 결의하였다.

1951년 1월 9일 새벽 태백중학교 학생들이 교정에 모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참전하기 위해서였다. 127명의 학생들은 참전을 위해 당시 태백중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이던 박효칠(1927~1975) 교사의 인솔을 받아 추위를 견디며 3일 밤낮을 걸어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도착했다. 그러나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의 저지를 받았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당시 육군본부에 있던 울산까지 가려고 했는데, 봉화에서 군국들이 이들에게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태백중학교 학생대표들은 제23연대장 김종순 대령을 찾아가 정식으로 입대를 요청하였으나 연대장이 어린 학생들을 군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사했다. 그러나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나이와 키를 속이면서 까지 다시 간곡히 전원 입대를 청했고, 학도병들의 구국의지에 감동한 김종순 연대장은 입대를 허락했다. 1월 14일 제23연대는 태백중학교 학생을 학도중대로 편성하였다. 인솔 교사였던 박효칠 교사도 23연대에 함께 입대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전쟁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과 고락을 함께했다. 박효칠 교사는 이때의 일들을 『강원교육』 1971년 6월호에 「나의 제자 군번 없는 용사들」이라는 6.25수기특집을 써서 소개하기도 했다.¹¹⁾

학도중대로 편성된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당시 전선이 위급했기 때문에 4~5일 간 기초적인 군사훈련만 수행한 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전투에 처음 투입되었다. 어린 중학생들에게는 미군이 사용하던 M1 소총이 지급되었다. 소총이 너무 커서 학생들이 착용하면 땅바닥에 끌릴 정도였고, 군복이 지급되지 않아 교복을 입고 훈련했다고 한다. 당시 영월지역에서는 국군 제3사단이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북한군 3개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북한군은 원주·평창·단양 등 영월근처 지역으로 흩어졌다. 제23연대 태백중학교 학도중대는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는 임무를 맡고 1951년 1월 26일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것이 태백중학교 학도병

11) TV조선 호국보훈의달 특집다큐 '127명의 학도병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6년 7월 1일 방영) 참조.

의 첫 참전이었다.

1951년 4월 제3사단이 국군 제3군단에 편입되자 태백중학교 학도중대는 중동부전선 최전방으로 이동하였다. 학도병중대가 소속된 제23연대는 강원도 인제 한석산과 매봉지역에서 북한군 제12사단과 대치하였다. 5월 6일부터 5일간의 혈전을 통해 매봉·한석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국군은 중동부전선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태백중학교 학도중대는 다시 5월 16~20일까지 벌어진 인제 상담지구전투에 참전하였다.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이 한계리와 현리지역으로 우회하여 공격하자 제3군단이 포위되었다. 학도중대는 아군의 후방으로 침투하려는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고 국군 제3군단을 포위망에서 구출하였다. 이때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단 한명의 부상자도 전사자도 없었다.

1951년 2월 28일 종군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의 「복교령」이 내려지자 이 「복교령」에 따라 강원도 대부분의 학도병들은 3월 16일 해산되었다. 이 사실이 뒤늦게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에게도 알려졌다. 학도병들은 고향인 태백중학교로 돌아갈 줄 알고 있었으나, 국군에서는 이들에게 정식 입대를 권유했다. 아직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을 정규군으로 편성하여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휴전직전까지 치열하게 벌여졌던 전투에 참여하여 줄 것을 권유한 것이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1951년 6월 1일 정식으로 현역 군번을 받고 입대선서식을 거행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이 정식 군번을 받고 현역 병으로 입대하자 학도중대는 해산되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 출신들은 군번을 받고 그 용맹함을 인정받아 1951년 6월 15일 특공대로 편입되었다. 이후 1951년 7월 28 간성 죽고개 전투에 참전하여 214고지 탈환하였다. 1952년 2월 3일 김화 949고지 탈환전투 참전, 1953년 2월 2일 양구 가철봉전투 참전, 1953년 5월 30일 간성지구 전투 등에 참전하여 특공대의 임무를 수행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53년 7월 휴전이 결정되기 직전에 제23연대 특공대가 해산되었으므로, 태백중학교 학도병 출신들은 각 부대의 행정부서에 배치되어 행정임무를 수

행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태백중학교 학도병출신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태백중학교 학도병 출신들은 1955년부터 1957년 사이에 대부분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127명의 학생들 중 18명이 전투 중 전사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부터 ‘화백회’라는 전우회를 결성하여 1954년 12월 첫 추모행사를 갖고 이듬해부터 현역 군번을 받은 날인 매년 6월 1일, 정기적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1953년 9월 20일 전사한 18위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교정에 충령비(충혼탑의 전 명칭)를 세웠다.

태백중학교에서는 1997년 2월 15일 휴전 이후 군복무를 지속하여 졸업을 하지 못한 70여 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학도병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을 199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건립했으며, 국군 제3사단은 2005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사단 교육장에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을 기리는 전적비를 건립하였다.¹²⁾ 2016년 6월 1일에는 화백회에서 열던 추모제를 육군본부 주관의 호국보훈 행사로 확대하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태백중학교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학도병 127명을 포함한 태백중학교 출신 참전용사 169명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진 명패를 태백중학교에 증정하였다. 또한 이영도 용 등 22명의 참전 주역들에게는 꽃다발과 함께 축소된 명패를 증정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 맺음말 : 현대사회에서의 의의

학도병은 정규군으로 활동했던 국군이나 연합군에 비해 수는 적었지만 전쟁에서 차지하는 공헌도는 매우 컸다. 세계적으로 20세기 전쟁에서 6.25전쟁의 학도병과 같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적 단체를 결성해 참전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개전과 동시에 학도병들은 자발적인 참전을 했

12) 「태백중학교 학생들의 병영일기」, 『통일한국』 25, 평화문제연구소, 2007, 97~99쪽.

고, 이들의 참전으로 전세가 회복되고 병력 충원체제가 정비되었다.

맺음말에서는 재차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생략하고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이 갖는 현대사회에서의 의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태백중학교 학도병 참전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단연 애국심의 표상이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병역의무가 없었지만 의기하나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나라를 지켜낸 이들이다. 이분들의 순수한 애국정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본으로 삼을 만하다.

둘째, 한 학교 학생들 100여명 이상이 단체로 자원입대한 사례는 전쟁 전후로 태백중학교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전쟁 당시 대부분의 학도병들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교우들이 입대하였다. 태백중학교와 같이 한 학교에서 100여 명이 넘는 학도병이 자원입대한 것은 당시 태백중학교 학생들의 호국 열의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귀감으로 삼을 만한 일이다.

셋째,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과 군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만, 국군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군의 병력충원에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 특수임무를 맡아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쟁 후반부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남북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인 강원도 지역의 여러 전투에 참전하여 전황을 반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넷째,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복교령」이 하달된 이후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정규 군인으로 편성되어 휴전 직전까지 접경지역 전투에 참여하였다. 타 지역 학도병의 경우 대부분 학교로 돌아갔으나,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오히려 군번을 받고 정규군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국군 측의 강압적 권유가 아니었다.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구국을 위해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정식 군인이 되어 국토를 수호하고자 했다. 특히 특공대의 임무를 띠고 활약하며 남측이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6.25전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보통 학도병 출신들은 전쟁이 끝난 후 모임을 결성하여 학도병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부터 ‘화백회’라는 전우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태백중학교 참전용사들은 오랜 세월 전쟁의 참화와 학도들의 애국심을 지역에 알려왔다. 이제 대부분 고령으로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 않았다. 이분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선양사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생존해 계신 분들의 구술증언을 하루빨리 모두 채록하여 후세가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로 남겨야 할 것이다.

여섯째,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호국정신 함양 교육의 모범이 된다. 남북관계가 진전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분단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호국정신 함양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과 같이 6.25전쟁을 경험한 노년층은 참으로 남다른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화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현실에 있어서는 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애국교육은 사실상 방치돼 있는 환경이다.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과 애국 사례는 강원도의 교육현장에서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가장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감당한 ‘초과의무(supererogation)’는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이분들의 영웅적인 활동상을 발굴하여 널리 선양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일 것이다. 학도병들의 호국정신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태백학도병의 6·25 참전과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의”에 대한 「토론문」

김 정 현 박사

(강원도청 강원도사편찬위원회 편찬연구원)

이상균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태백 학도병들의 전쟁 참전 과정과 학도병들의 나라사랑을 위한 참전활동이 현대사회에 있어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균 교수님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태백 학도병들의 활동은 애국심의 표상, 자원입대의 유일한 사례, 특수임무 수행 등 수많은 전공 성과를 거두었고,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화백회에서 추모선양을 하고 있는 등 지역적 활동에 있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것은 「복교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원입대를 하여 군번을 받고 정식 입대를 하였는데, 이는 국군 측의 강압적인 권유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강압적 권유는 아니었으나 국군 측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원입대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태백 학도병들 중 생존해 계신 분들의 구술 증언 녹취 및 관련 수기 등을 수집하여 기록화 시키고, 역사적 평가를 담은 전수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술 녹취자료는 후속세대들의 교육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홍보자료로써 널리 알려야만 진정한 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술증언의 녹취를 할 때 조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2주제 : 태백학도병 연구 동향과 활성화 방안

- 발표 : 홍영호 박사(하슬라문화재연구소 소장)
- 토론 : 이용연 회장(태백중학교학도병 화백회)

태백중학교 학도병 연구 동향과 활성화 방안

홍 영 호 박사

(하슬라문화재연구소 소장)

차 례

- I. 머리말
 - II. 6·25전쟁 중 학도병 결성의 역사적 배경
 - III. 태백중학교 학도병 연구 동향
 - IV.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과 활동
 - V.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성격과 분류
 - VI. 태백중학교 학도병 참전 활동의 의의
 - VII.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선양 및 활성화 방안
 - VIII. 맺음말
-



I. 머리말

최근에 영화 ‘장사리’가 상영되었다. 관람객도 상당히 많았고, 이 영화를 통해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병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태백중학교에서도 학도병들이 6·25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태백

중학교 학도병은 전국은 차지하고서라도 강원도에서조차 그 활동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6·25전쟁 중 학생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참전한 자를 ‘학도병’이라 불러 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학도의용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므로 이 명칭 문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학도의용군’이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학도의용군의 범주나 성격을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¹⁾ 다음, 개전 초기에 북한이 점령한 남한 지역의 양민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명칭이 의용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가 꺼림칙하다는 의견인 것이다.²⁾

반면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고유명사화 되어 통일된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의 학술연구에서도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³⁾ 다른 용어로 대

1) 학도의용군 참전자 박양호 인터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10쪽에서 재인용.

2) 박경석, 1995, 『서울학도의용군』, 116~11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10쪽에서 재인용.

3)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도의용군 단체의 회원들 중에는 참전 당시에 학생 신분이 아닌 분들도 있으며, 참전 당시에 학생 신분이었지만 곧바로 군번을 부여받고 정규군에 편입한 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의 활동 범위와 대상 설정에 문제가 있다. 먼저 1959년 병역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학도의용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도의용군’이라 함은 1950년 6월 29일 이후 ‘학도의용군’ (재일동포 학도의용군을 포함한다)으로 육·해·공군 또는 유엔군에 소속되어 1951년 2월 28일 해산할 때까지 근무한 자로서, 전투에 참가하고 그 증명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단, 전상(戰傷)으로 인하여 중간에 나온 자를 포함한다.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1994)에서 제시한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시부터 1951년 4월까지 대한민국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 치안유지,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혹은 단체를 말한다. … 중략 … 아울러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칭호는 ‘학도의용군’, ‘학도병’, ‘학병’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학도의용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치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필자도 ‘학생’이라는 신분과 자발적인 ‘지원’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학도의용군’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학도병’이라는 용어도 ‘학생 신분의 군인’이라는 뜻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듯이 보이지만, 자발적인 ‘지원’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부르는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와 구분되는 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지원+군대’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용어인 ‘학도의용군’이 타당한 용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가 아닌 6·25 전쟁 때 군번 없이 참전한 ‘학생 병사’, ‘학생 군인’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자발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만 복무할 수 있으므로 ‘학도병’이라는 용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도의용대’라는 명칭도 사용되지만, 필자는 ‘(의용)대’라는 용어가 ‘군대’라는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하 본문에서는 ‘학도의용군’이라는 명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 다른 사람의 저술에서 ‘학도의용군’으로 서술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면서, 기본적으로는 ‘학도병’, ‘학도중대’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글은 6·25전쟁이 일어난 이후 1·4 후퇴 때 자발적으로 군에 지원 참전하여 각종 전투 활동 및 지원 활동을 한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에 대한 연구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찾아본 것이다.

이로 보아 학도의용군의 범위와 대상을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에 의하여 다양한 전투 및 비전투 업무에서 군과 경찰을 도운 개별 학생 혹은 단체로 확정하였으며, 시기는 6·25전쟁 발발로부터 1951년 4월 까지 전쟁 초기 10개월간으로 제한하였다. 이 근거는 비상학도대가 결성된 1950년 6월 29일을 시작으로 하고, 종결 시기는 1951년 3월 16일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학생 학교복귀 지시 담화’가 있는 날로 하되, 육군본부 정훈공작대의 실제 해산일인 1951년 4월 3일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재일학도의용군은 예외로 1953년 7월 27일, 즉 휴전일을 종결 일자로 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6~9쪽).

II. 6·25전쟁 중 학도병 결성의 역사적 배경

6·25전쟁 시기에 수많은 학도병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참전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 국군은 미국에 장비와 재정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군 10만 명 이외의 별도의 병력, 즉 예비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병력 증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던 우리 정부는 정규군 충원에 차질이 생기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려 하였다. 정부수립 직후에 호국군⁵⁾ 창설과 청년방위대⁶⁾ 조직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도호국단⁷⁾의 창설과 단원들에 대한 군사훈련도 정부수립 직후

4) 이 장의 내용은 다음 책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20~51쪽.

5) 호국군은 1948년 11월 창설이 결정되었으며, 1949년 1월 20일에는 긴급대통령령(대통령령 제52호)에 의해서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 조치령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모병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아 편성한 후 지원에 따라 정규군에 편입할 수 길을 열어 놓았다. 호국군에 참가한 사람들은 장교와 사병 공히 예비역으로 하여 각자 거주지에 주둔하고 있는 연대에 소속되며,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국방사』 (1), 385~386쪽; 『병무행정사』 (상), 36~38쪽). 1949년 7월 호국군은 5개 여단, 10개 연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49년 8월 6일 병역 지원제가 징병제로 개정된 새로운 병역법이 공포됨에 따라 호국군은 8월 31일부로 해체되었다(『국방사』 (1), 387~388쪽). 이하 이 글에서 인용된 『국방사』 (1), 『병무행정사』 (상),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대한민국 건국10년지』, 『한국 학생 건국 운동사』는 다음 책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6) 청년방위대는 1949년 11월 초에 병역법 제77조에 의거하여 대한청년단을 근간으로 출범하였다. 대한청년단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각종 청년단체를 단일화시켜 만든 조직이었다. 간부요원은 대한청년단의 배속장교와 해체된 호국군 장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2주간의 보수교육 후 임명하는 방법으로 충당하였다. 방위대의 편성은 전국 시와 도에 지구별로 사단급에 해당하는 방위단을 설치하고, 그 밑에 군(郡) 단위로 지대(연대급), 면(面) 단위로 편대(대대급), 리(里) 단위로 구대(중대급) 또는 소대를 두었다. 1950년 4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대편성과 조직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며, 6월에 들어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청년방위대원들은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분산되었으며, 그 중 일부 간부와 대원이 현역에 편입되었다(『병무행정사』 (상), 259쪽).

7) 학도호국단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초대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한 안호상의 구상에 의해 탄생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 초에 중학교 이상의 각 급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군발전사편찬위원회, 1986,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육군본부, 61~62쪽). 정부의 지도자들은 당시 학교 내 좌익들을 제도적으로 축출하고, 이들과 맞서 싸울 우익 학생단체들을 양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예비 전력 보완책의 하나로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

특히 학도호국단은 학도의용군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학도호국단을 통하여 체득된 기초적인 군사 경험이나 그에 수반된 애국심 고양 등의 정신교육은 학도의용군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전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학도호국단은 물론 기존의 조직과 간부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학도의용군을 결성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25전쟁 발발 직전 대한민국은 10만 명 정도의 정규군 병력을 유지하였는데,⁹⁾ 이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였다. 비록 징병제가 선포되기는 했지만 전쟁발발 이전까지 실제로 징병은 실시되지 않았다.¹⁰⁾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제대로 된 병무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1951년 5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부가 제2국민병 소집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징병제가 시작되었다.

6·25전쟁 개전으로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예비군(제대 군인)도 없었으며, 징집을 위한 행정도 중단된 상태였

각 급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 이외의 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학생들의 활동은 학도호국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법령화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을 9월 27일에 대통령령 제186호로 공포한 것이다(『대한민국 건국10년지』, 315쪽). 따라서 1949년 말에 학도호국단은 전국의 중학교 이상 947개교, 총 단원수는 45만 명을 총괄하는 전국적인 학생조직으로 발전하였다(국방부, 1984, 『국방사(1)』, 392쪽). 이들은 유사시에 국방의 전선에 동원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서의 기초적인 군사 훈련도 받았다.

8) 『국방사』(1), 391~393쪽.

9) 미국은 국군의 정규군 규모 확대를 우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규군의 최대 규모를 10만 명으로 제한하려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능력상 10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보유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위기는 대한민국의 대미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의 병역법에서도 지원병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군의 확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10)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병역법은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되었다.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병무국을 국방부 내에 설치하였고, 병사행정을 위한 병사구사령부를 도청 소재지에 설치하였다. 1950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군 10만 편제의 제약으로 징병검사의 필요성이 없어져 그 후 징병검사의 실시를 보류하고, 군 예산의 절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950년 3월에는 병무국과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해체하였다(『병무행정사(상)』, 263쪽).

으므로 병력 충원을 위하여 정부는 1950년 7월부터 제2국민병(병역의 하나로 만17세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가 대상이 됨)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쟁이 치열해지고, 소집절차의 미비 등으로 가두소집이나 강제모병을 할 수 밖에 없었다.¹¹⁾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전세가 안정되면서 반격을 위하여 20만 명의 신병 보충이 필요하였다. 이에 시급히 1950년 11월 제2국민병 등록을 실시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짧은 시간과 미비한 병사행정으로 인하여 무리가 따랐다. 정부는 1951년 5월 25일 병역법을 일부 개정하여 대통령이 각종 소집을 실시할 때는 병종(兵種)과 연령을 사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해 7월 처음으로 국무원에 의한 소집공고가 실시되었다. 이후에야 비로소 제2국민병 소집이 수월해졌다.¹²⁾ 이후 1952년 9월 5일부터 제2국민병 소집과 아울러 처음으로 징집을 개시하였다. 지원과 징집에 의해서만 신병을 보충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8월 31일 제2국민병 소집이 종결되면서 시작되었다.¹³⁾ 1949년 8월 병역법이 공포된 이후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역법이 천명하고 있던 징집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것이다.

6·25전쟁이 개전된 후, 6월 29일에 수원에서 형성된 비상학도대가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동안, 7월 초에는 남하한 정부를 따라 대전에 내려온 학생들이 김득신 등을 중심으로 국방부 정훈국의 지도 아래 ‘의용학도대’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세가 악화되어 정부가 대구로 내려감에 따라 의용학도대 소속의 학생들도 대구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수원에서 철수한 비상학도대와 대전에서 내려온 의용학도대가 대구에서 집결하였다. 이후 두 조직은 7월 19일에 공식적으로 통합하여 대한학도의용대로 개편한 이후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부산에 집결되었던 학도들도 심영택을 중심으로 대한학도의용대를 조직하였는데, 이 조직도 초기에는 별도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와 임시수도를 정하자, 두 개

11) 『병무행정사상』, 273쪽.

12) 『병무행정사상』, 273~275쪽.

13) 『병무행정사상』, 272쪽.

의 학도의용대가 부산 동아극장에서 통합식을 통해 조직을 통합하였다.¹⁴⁾ 이 조직이 바로 국방부 정훈국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전시학도 조직체의 본산이었으며, 6·25전쟁 시 활약한 학도의용군의 실질적인 모체였다.¹⁵⁾

이후 수많은 학도의용군들이 각 지역에서, 각 학교에서 결성되어 참전하였는데, 참전을 자원한 학도의용군들은 학생의 신분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병역법상 징집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16~19세의 어린 나이로서 1950년 당시 제2국민병의 소집 나이에 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와 같이 6·25전쟁 이전에 정부가 예비 전력을 충원하려고 시도한 정책으로 학생조직(학도호국단)이 이미 편성되었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학도의용군들이 6·25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Ⅲ. 태백중학교 학도병 연구 동향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이 위기에 처하자, 많은 학생들이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학도의용군은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상황에서 6월 29일 수원에서 ‘비상학도대(非常學徒隊)’를 조직하여 한강을 도하하려던 북한군을 노량진 일대에서 저지하기 위하여 참전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전세가 악화되어 아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더 많은 수의 학도의용군들이 가담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 충원, 전투 및 전투지원 임무 수행, 후방지역 치안 유지 및 선무 공작 등을 담당하면서 전황의 호전

14) 『한국 학생 건국 운동사』, 560쪽.

15)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67쪽.

에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학도의용군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국군이나 미군부대에 배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현지에서 입대하기도 하였다. 결국 전세가 호전되고 국가의 병력충원제도가 정비되어 원활한 병력충원이 가능해진 1951년 2월 말과 3월초에 정부와 대통령에 의해 ‘참전 학도 복교령’이 공포되고, 이를 계기로 4월 3일에 정훈공작대가 해산됨을 마지막으로 6·25 전쟁에서 학도의용군의 공식 활동은 종료되었다.¹⁶⁾

그런데 그동안 국내 및 외국 학계는 6·25전쟁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발굴하여 연구해 왔으나 유독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¹⁷⁾ 그 이유는 많은 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이 자신들의 눈물 나는 사연을 다양한 형태로 말해왔으나,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학도의용군들이 주로 국군이나 미군에 배속되어 활동하거나, 적지에서 유격대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식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의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참전자들이 고령으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실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관심만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채록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역사 연구에서 현대사를 분석하는데 구술사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어 여러 분야와 주제에서 구술사 채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

16) 손규석, 2002, 「학도의용군 활동유형 분석」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8~89쪽.

17) 학도의용군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중반에 학도의용군 부대의 소대장이었던 남상선에 의해서였다. 그는 『6·25와 학도병』(1974)과 『학도의용군』(1994) 등을 저술하여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육군본부에서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1994)을 출간하여 학도의용군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학도의용군 출신 박양호의 『한국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2009, 화남출판사)도 간행되어 학도병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학도의용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간행한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2012) 및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2012)이다.

한편 다음 논문에서도 학도의용군의 활약상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하재평, 2001, 「6·25전쟁 시 국가 총력전 전개 양상」, 『전사』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44쪽.

도병 연구 역시 구술사의 대상이며, 여전히 생존자를 중심으로 채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숭고한 역사를 외면한 우리의 책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매우 적다. 그나마 학도의용군의 참전 과정과 전투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도 근래에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남상선·김만규, 1974, 『6·25와 학도병』
- ② 남상선, 1994, 『학도의용군』
- ③ 하재평, 2001, 「한국전쟁 시 국가 총력전 전개 양상」, 『전사』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44쪽
- ④ 손규석, 2002, 「학도의용군 활동유형 분석」,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88~89쪽
- ⑤ 박양호, 2009, 『한국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 화남출판사
- 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①번(1974)과 ②번(1994)의 남상선의 저술은 여러 지역에서 지원하여 편성된 학도의용군이 국군 제3사단에 배속되어 포항여중 전투를 치르면서 대부분이 전사한 후, 다시 학도의용군을 더 지원 받아 학도병 중대로 재편성되어 전투 활동을 하다가 1951년 3월 복귀하는 과정을 그 시작부터 해체까지 자세히 서술하였다.

③번(2001) 하재평의 글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각종 단체와 조직을 다루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학도의용군과 소년지원병이 별도의 장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극소수의 학도의용군과 소년지원병만을 다루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 전체 활동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도 서술되지 않았다.

④번(2002) 손규석의 논문은 학도의용군의 형성 과정과 학도의용군의 유형을 구분한 글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학도의용군만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루었을 뿐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많은 수의 학도의용군이 거론되지 않았다. 당연히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 활동도 서술되지 않았다. 다만 맺음말에서 전쟁 기간 동안 자생적으로 태동했던 수많은 지역 학도의용군은 물론이고 강릉사범학교 학도의용군이나, 진영 학도의용군 그리고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과 같이 보다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조직들에 대한 활동을 입증하고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맺음말에서 태백중학교 학도병이 명시되어 언급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⑤번(2009) 박양호의 저술은 제1장과 제2장으로 구분하여 1장에서는 한국전쟁 직전의 남·북한 상황, 주요 전투, 북한공산군과 좌익분자들의 만행, 대한민국 학도의용군 각 단체를 소개하였고, 2장에서는 각 학도의용군별 참전 수기 6개를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과 참전 수기 「동부전선을 지켜낸 태백중학교 학도중대」(이용연)가 소개되었다.

⑥번(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간행한 연구물은 학도의용군이 참전하기 이전의 국내의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이에 따른 우익 단체의 창설과 양성 과정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학도의용군의 결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특히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의 형성과 활동을 시기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 단체별로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사실상 이 책은 6·25전쟁 동안 활동한 학도의용군에 대하여 가장 정리를 잘하였다고 평가된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도 ‘태백학도의용군’이라는 항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다만 이 연구 책자와 함께 간행된 자료집(『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에는 여러 학도의용군 단체의 참전 수기가 녹취·채록되어 있으나, 태백중학교 학도병 참전자의 수기는 수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 학도의용군 참전 단체의 현황과 참전자 명단에는 ‘태백중학교 학도병 명단’으로 총 129명이 수록되어 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활동에 대한 채록 작업과 조사 연구도 근래에 와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참전 활동을 수록한 책자들을 간행된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연복 엮음, 1998,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 ② 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 ③ 박양호, 2009, 『한국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 화남출판사
- ④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 ⑤ 강릉학도 전우회, 2019, 『강릉학도 6·25전쟁 참전기』

①번(1998) 정연복의 저술은 태백중학교 학도병 출신들의 참전기를 채록한 것이다. 이 책은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의 참전기를 최초로 채록 발간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한국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2009)와 『6·25전쟁의 학도의용군 연구』(2012)에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한 의미가 크다. ②번(2001) 정연복의 저술은 ①번의 저술과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참전자의 수기가 더 늘었는데, 두 책에 수록된 학도병의 참전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연복(1998): 김봉진, 김성진, 故박효칠(교사), 신병락, 유수열, 이용연, 정범진, 황두영
- ② 정연복(2001): 강계창, 구태수, 김봉진, 김성진, 김시돈, 김정룡, 故박효칠(교사), 신병락, 유수열, 이영도, 이용연, 정기수, 천순선, 홍순택, 황두영

이와 같이 ①번 정연복(1998)에서는 8명의 참전 수기, ②번 정연복(2001)에서는 15명의 참전 수기가 수록되었다. ①번 정연복(1998)에 수록된 8명의 참전 수기 가운데 정범진의 참전 수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의 참전 수기는 ②번 정연복(2001)에 실렸으므로 8명의 참전 수기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③번(2009) 박양호의 저술에는 대한민국 학도의용군 현황 명단에 태백중학교도 수록되어 있고, 참전 활동 사례 6개 가운데 「동부전선을 지켜낸 태백중학교 학도중대」라는 제목으로 이용연의 참전기가 실려 있다.¹⁸⁾ 그러므로 이 책은 6·25전쟁에 참전한 주요 학도의용군을 소개·서술하면서 태백중학교 학도병도 당연히 최초로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④번(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간행한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는 6·25전쟁에 참전한 주요 학도의용군들을 사실상 처음 집성한 책자이다. 이 책자에서도 독립부대로 활동한 학도의용군을 소개하면서 ‘태백학도의용군’을 수록하였다.¹⁹⁾

⑤번(2019) 가장 최근인 2019년에 강릉학도 전우회에서 간행한 『강릉학도 6·25전쟁 참전기』에도 ‘제3사단 23연대 소속 태백 학도의용군’이라는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2007년에 평화문제연구소에서 『통일한국』 잡지에 ‘태백중학교 학생들의 병영일기-학도병기념관-’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소개된 바 있다.²⁰⁾

IV.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과 활동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 배경과 활동에 대해서는 참전 수기들을 통하여 파악이 된다. 이들 참전 수기를 토대로 그들의 참전 활동 과정을 그려볼 수 있는데, 특히 박양호가 저술한 『한국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2009)에 수록된 이용연의 참전 수기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간행한 『6·

18) 박양호, 2009, 『한국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 화남출판사, 104쪽 및 419~461쪽.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129~135쪽.

태백학도의용군과 함께 소개된, 독립부대로 활동한 학도의용군은 수도사단 학도의용대, 제3사단 학도의용군, 여수·순천지역 학도의용군, 서울학도포병대대이다.

20) 평화문제연구소, 2007, 『통일한국』 278호, 97~99쪽.

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2012)가 크게 도움이 된다.²¹⁾

태백중학교는 1948년 9월 20일 교육자 김유덕에 의해 삼척군 상장면 장성리에 태백야간중학교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50년 5월에 태백공립중학교로 개편되어 주·야간 남녀 공학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흔히 태백중학교로 불렸다.

중공군 참전 이후 전세가 아군에게 불리해지자, 1951년 1월 4일, 이른바 1·4후퇴로 인하여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1월 8일 오후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 들었다. 그들은 최근에 북한군이 태백시내의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고, 북한군 부상자가 버젓이 장성리에 나타났다는 것은 곧 북한군 부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작년 여름에 공산 치하에서 생활해 보았던 터라 마음이 불안하였다. 당시 이들은 북한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골짜기와 산속으로 들어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태백 지구에 북한군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처럼 숨어 살거나, 의용군에 끌려가 전선에 내몰릴 것으로 생각하였다.²²⁾

이에 일부에서 “학도병으로 지원하자”며 제안하였고, 이때 지난 해 여름 낙동강 방어선에서 포항에서 학도병들이 북한군과 싸워서 전선을 방어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다음 날인 1월 9일 학생들은 아침 일찍 태백중 운동장에 모여 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퍼져 뜻을 같이 하겠다는 학생들이 몰려왔고, 상장면 방위대 청년들도 모여 들었다. 태백중학교 학생들과 청년방위대원들은 운동장을 빠져

21) 박양호, 2009, 「동부전선을 지켜낸 태백중학교 학도중대」, 『한국전쟁의 실상과 학도병 이야기』, 화남출판사, 419~461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태백학도의용군」,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129~135쪽.

이 장은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에 수록된 「태백학도의용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2) 이러한 분위기는 참전 학도병의 증언에서도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 인민군은 15세부터 의용군이란 명칭으로 전쟁터로 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들은 숨어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던 젊은 친구들은 인민군 청년위원회에 가입해 간혹 집에 와서, 하루 속히 나와서 함께 일하도록 해 달라고 말하고 다녀 더욱 겁에 질렸다. 밤 늦게까지 들판이나 산에 숨어 생활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 (정연복 역음, 1998,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131쪽 황두영의 증언;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197쪽 황두영의 증언).

나와 고향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났다. 이때 학도병으로 자원하고 나선 학생의 숫자가 123명이었는데, 당시 태백중학교 재학생이 남녀 모두 약 300여 명 정도였으니, 여학생과 일부 유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학생이 학도병에 지원한 셈이다.

그런데 학교를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학을 가르치는 박효칠(朴孝七) 교사가 학생들의 대열에 합류하였다.²³⁾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휴교령이 내려져 집으로 돌아와 있던 학생 3명이 태백중학교 학생들의 학도병 지원 소식을 듣고 합류하였다. 이처럼 태백지구에서 학도병이 되기 위해 출발한 인원은 박효칠 교사를 포함하여 모두 127명이었다.²⁴⁾

당시 태백중학교 학생들의 목적지는 육군본부가 있는 울산이었다. 그러나 1월의 영하의 기온과 강풍으로 행군이 어려웠고, 학생 2명은 동상에 걸려 행군이 불가능하여 두 명의 동상자와 이들을 인솔할 학생 1명 총 3명을 귀향시키고,²⁵⁾ 123명(박효칠 교사를 포함하면 총 124명)은 다시 울산을 향하여 행군을 계속하였다.

학생들이 경북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의 한 마을을 지나던 1월 11일 경에 청년방위대 소대장 2명과 학생 대표 5명이 인근에 있는 제3사단 23연대 본부를 찾아가 입대를 요청하였다. 다음날, 연대장(김종순)은 이들을 입대시키기로 결정하고 청년방위대원과 태백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간단한 신체검사를

“... 학생들은 이번에는 겨울철이라 숨어 건널 수도 없었고, 또 남아있자니 6·25 발발 당시와 같이 갖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인민군에 부역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 (정연복 엮음, 1998,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132쪽 황두영의 증언;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199쪽 황두영의 증언).

23) 박효칠 교사는 평안남도 평원군 출신으로 해방 이후 남하하였다. 신의주제일공업학교 학생회장이었던 그는 1945년 11월에 소련과 김일성에 맞서 반공학생운동을 주도하다 온갖 고생했던 사람인데, 학생 있는 곳에 선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131쪽).

24) 처음에는 124명이 떠났으나, 행군 도중에 고향이 장성으로, 타지방에서 수학하다가 귀향한 학생 3명(삼척공업학교 2명, 서울 대동상업학교 1명)이 합류하여 127명이 되었다(정연복 엮음, 1998,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70쪽 유수열의 증언).

25) 1학년 이범수가 동상에 걸려 그의 형인 2학년 이기수가 부축하여 귀향하고, 동상으로 신음하는 3학년 주동호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귀향하였다(정연복 엮음, 1998,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75쪽 유수열의 증언).

실시하고 전원 합격시킨 후 1월 14일에 입대식을 거행하였다. 이튿날 이들은 제23연대의 학도중대로 편성되었다. 학도중대는 4개 소대 12분대로 편성하였다. 제4소대는 편제상 화기소대였지만, 이름뿐이었고, 모두 소총수였다. 박효칠 교사는 이등상사로 임명되어 중대 인사계를 맡아 학생들을 뒷바라지 하였다.

입대식 이후 태백중학교 학도병(학도중대)들은 중앙초등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하였고, 5일 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마친 1월 20일 야간에 학도중대는 군용차를 타고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로 이동하였다.

다음 날인 1월 21일 아침, 학도병들은 식사를 마치고 실전에 투입되었다. 국군 제3사단은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1월 14일부터 5일간 북한군 3개 사단에 맞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은 1,500여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패주하였는데, 제23연대 학도중대의 임무는 이 전투에서 낙오된 북한군 패잔병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이 전투를 수행하던 1월 16일 오전에 학도중대 첫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학도중대는 제23연대가 제천으로 이동함에 따라 함께 이동하였다.

1951년 4월에는 제3사단이 국군 제3군단에 편입됨에 따라 학도중대 역시 중동부전선 최전방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학도중대가 소속된 제23연대는 북한군 제12사단과 한석산과 매봉을 둘러싸고 벌인 혈전에 투입되었다. 이후 5월에는 중공군이 춘계대공세를 가하면서 인제 현리를 공격하자 제23연대의 학도중대는 아군의 후방으로 침투하려는 적과 치열하게 싸웠다. 하지만 중공군과 북한군에 밀려 아군의 후퇴와 철수가 결정 나자, 학도중대도 후퇴하여 임계까지 철수하였으며, 이후 강릉을 거쳐 양양군 서면 송천리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이승만 대통령이 1951년 3월 16일의 담화문을 통해 ‘중군학생 복교령’을 하달한 사실이 뒤늦게 태백중학교 학도병에게도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6월 1일에 양양군 송림에서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받고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어 귀가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²⁶⁾

26) 동일한 3사단에서 포항여중 전투 학도의용군을 계승한 학도병 부대는 1951년 3월 16일 흥천에서 해산하였으나, 태백중학교 학도중대는 오히려 6월 1일 현역으로 편입된 것이 의아하다.

한편 제23연대는 학도병들에게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한 이후 학도중대를 해산하고 중박격포중대로 개편하여 이들에게 박격포, 무반동포, 화염방사기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학도중대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특공대를 결성하고, 약 1개월 동안 특공대 교육을 실시하였다.²⁷⁾ 이 훈련에서는 북한군의 무기 사용법, 게릴라 전술 등을 훈련시켰다. 이 훈련을 마친 학도중대는 간성 쑥고개 전투에 투입되었고, 이어서 214고지 탈환 및 적 후방 20리 지점까지 침투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 후에도 748고지, 949고지 탈환전투, 가칠봉 전투, 김화지구 전투 등에 참전하여 성공적으로 특공대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3년 7월 25일 휴전협정 체결 직전에 학도중대가 중심이 되었던 제23연대의 특공대는 해산되었으며, 이후 연대에서는 이들이 학도병 출신인 점을 감안하여 각 부대의 행정부서에 분산 배치하여 행정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 이후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여러 병과로 분류되어 전후방의 여러 부대에 분산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새로 배치된 부대에서 문맹퇴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간하는 『정훈』이라는 잡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²⁸⁾

〈표 1〉 주요 전투 및 활동²⁹⁾

1950. 6. 26	북한 공산군 불법 남침
1950. 9. 26	서울 수복, 압록강까지 진격
1951. 1. 4	중공군 개입으로 서울이 침탈당함

이 점에 대하여 참전 학도병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이들의 전투수행능력이 탁월하여 부대에서 임의로 편입한 것으로 주장한다(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109쪽, 김정룡의 증언).

27) 태백중학교 학도중대가 연대의 특공대로 선발된 것은 인제 현리 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여 아군의 후퇴에 도움을 준 공로와 후퇴 후 병력 점검 결과 1개 대대 병력이 1개 중대 병력밖에 남지 않는 부대가 많았고 태반 이상이 낙오, 실종, 아사하였으나 태백 학도중대만은 전원 집결지에 도착하였으며 장비도 한 점 손실이 없다는 사실이 사단에 보고되어 결국 특공대가 된 것 같다는 증언이 있다(정연복 엮음, 1998,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46쪽 김성진의 증언).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129~135쪽.

29) 정연복 엮음, 1998,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188쪽 참전 약사 전제.

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236쪽 참전 약사 전제.

1951. 1. 9	태백중학교 1~4학년 학생 127명이 모교 교정에 집결하여 박효칠 선생의 인솔로 경북 춘양의 3사단 23연대로 행진하여 입대를 간청함.
1951. 1. 14	학도병 1개 중대로 편성되어 법전초등학교에서 기초 훈련 시작
1951. 1. 26	영월 녹전 지구 전투에 투입, 손길상 전사
1951. 5. 16	제천을 거쳐 철원까지 진격하였다가 후퇴하여 인제 현리 상답 지구에서 13시간 전투로 중공군에 포위된 3군단 병력을 구출
1951. 6. 1	정선, 강릉을 거쳐 양양에 도착, 송림에서 현역 입대식(이때에 군번을 받음)
1951. 6. 15	연대 특공대로 편성되어 1개월 특공대 훈련 이수
1951. 7. 28	유격 훈련 도중에 간성 쑥고개 전투에 투입, 214고지 탈환, 적 후방 20리 지점까지 침투하여 적의 보급로 차단. 이인성, 권시철, 허순필, 권오학, 최형규 전사
1952. 2. 3	748, 949고지 탈환. 김상기, 심태섭, 권원섭, 금병선 전사
1952. 9.	한도준 교무 인솔로 모교 남녀 30여 명 학생이 전방 위문
1953. 2. 2	양구 지구 '피의 능선' 가철봉 전투 및 748고지 전투. 원재복, 허영이, 임성모 전사
1953. 5. 30	김화 지구 전투. 김형필, 김국문, 임석순, 정춘수, 오창남 전사

이들 학도중대가 치른 주요 전투 가운데 특히 인제 현리 상답지구 전투는 상기할 만하다.³⁰⁾ 태백중학교 학도중대는 상답지구 전투에서 적의 공격부대를 2시간 동안 막아내면서 적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그 결과 아군 4개 사단(육군 제3군단)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함으로써 아군을 구출하는 데 큰 전공을 세웠다. 그 당시 육군 정훈지에 대서특필로 학도중대 전황이 실렸는데, 제목이 ‘일개중대 학병이 1개 군단을 구출, 용감한 학도병’이었다.³¹⁾

이 상답지구 전투에서 학도병들이 배속된 23연대 병력도 전사자, 행방불명(거의 포로가 됨), 부상자를 제외하고 절반 정도가 생존하였다. 이 상황에서

30) 이른바 인제 현리 전투를 말한다. 국군 3군단(3사단 및 7사단)이 중공군 9병단의 포위 공격(2차 춘계 공세 또는 5월 공세)에 싸울 의지를 상실하고 와해되어 각 부대들이 편제를 유지하지 못한 채 1/3만 탈출하여 6.25전쟁 중 최악의 패전을 당하였다. 그 결과 유엔군은 국군의 전투력을 불신하게 되고 3군단을 해체하였으며, 3군단장 유재흥 중장도 보직해임 당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와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공군의 이중포위망(오미재, 침교 차단)을 벗어나기 위하여 분산 후퇴하여 최종적으로 70%의 병력이나마 보존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31) 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84쪽 김성진의 증언.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전사자가 1명도 없이 후방 집결지에 모였다는 점은 실로 기적에 가까운 천운이다.³²⁾ 당시 학도병들은 전사자가 1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 하나도 부상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태백산 신령께서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하였다.³³⁾

한편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들의 충성심은 효도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도병으로 아들이 참전하면서 아버지는 보급품을 나르는 보국대 소집에 면제를 받은 것이다.³⁴⁾

태백중학교 학도병 명단은 총 129명을 확인할 수 있고,³⁵⁾ 전사자는 18명이다.³⁶⁾

V.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성격과 분류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은 그 성격상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학도의용군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가 정규부대에 배속되어 활동한 경우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성되었고, 다른 학도의용군의 모범이 되었던 부대가 바로 수도사단 학도의용대와 제3사단 학도의용군이였다. 이들은 1951년 2월 28일에 정부에 의해서 학교 복교령이 내려지자, 스

32) 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72쪽 김봉진의 증언.

33) 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172쪽 이용연의 증언.

34) 정연복 엮음, 1998,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146쪽 황두영의 증언;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208쪽 황두영의 증언.

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347~351쪽.

127명이 아니라 2명이 늘어난 129명인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철원군 서면 자등3리 산393(보병 제3사단)에 세워진 ‘태백중학교학도병 전적비’에는 보병 제3사단 23연대에 자원입대한 태백중학교 학도병 숫자는 127명으로 되어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418쪽).

참전 학도병 전체의 명단은 다음 책에도 수록되어 있다.

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237~238쪽.

36) 태백중학교 전물 학도병 명단과 그 현황은 다음 책 참조.

정연복 엮음, 1998,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 189쪽.

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237쪽.

스로 해산하여 학교로 돌아왔다.³⁷⁾

그러나 정부의 학도의용군 해산 명령이나 학교복귀 지시 담화를 들은 학도의용군 부대는 일부에 불과하였다. 1951년 2월 말과 3월 초에는 학도의용군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 대부분은 이미 군번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다. 이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했지만, 전쟁을 치르는 중 현역 신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학교로 복귀할 수 없었다. 다만,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의해서 학도의용군 부대로 별도로 관리되던 정훈공작대와 같은 일부 단체들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학교복귀 지시나 대통령의 담화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곳에서는 여전히 학도의용군들에 의한 전투 활동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휴전이 체결되는 순간까지 전투를 계속하였다.³⁸⁾

6·25전쟁에서 활동했던 학도의용군은 다양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 참전하였으며, 참전한 이후 몇 가지 유형의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그 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⁹⁾

가. 첫 번째 유형: 정규군 부대에 배속되어 통제를 받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학도의용군 부대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한 부대이다. 전국학생총연맹 소속의 학생들이 수도사단에 찾아가서 결성한 수도사단 학도의용대와 이어서 결성된 3사단 학도의용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수·순천지역 학도의용군, 서울학도포병대대의 활동도 이러한 유형이다.

나. 두 번째 유형: 장사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제1독립유격대대의 경우처럼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63쪽.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72~73쪽.

이로 인하여 순수한 학도병 출신과 학도병으로 지원하여 군번을 받아 현역 군인 신분이 된 자들로 구분되면서 학도의용군의 정의 규정에 논란이 있다.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75~76쪽.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를 조직하고, 직접 활용한 경우이다.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조직한 정훈 제1, 2대대와 관련 선무반 활동도 포함할 수 있다.

다. 세 번째 유형: 유격전이나 후방지역 작전과 같은 다양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학도의용군 활동을 꼽을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학도의용대나 기존의 특수부대에 학생 신분의 학도의용군이 자원하여 참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웅진학도유격대와 태극단 학도의용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을 토대로 6·25전쟁 중 활동했던 학도의용군을 성격과 단체로 구분한 연구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⁴⁰⁾

제4장 6·25전쟁 중 학도의용군의 형성과 활동: 활동 단체별 구분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목차)

1. 독립부대로 활동한 학도의용군

- (1) 수도사단 학도의용대
- (2) 제3사단 학도의용군
- (3) 여수·순천지역 학도의용군
- (4) 서울학도포병대대
- (5) 태백학도의용군

2. 특정임무 수행을 위해서 결성된 학도의용군

- (1)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
- (2) 육군본부 직할 정훈 제1, 2대대와 선무반

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목차 참조.

3. 특수작전(유격전)을 수행한 의용군

- (1) 웅진학도유격대
- (2) 태극단 학도의용군

4. 재일학도의용군

5. 여자학도의용군

6. 기타 학도의용군

이에 따르면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독립부대로 활동한 학도의용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지역 명칭을 사용한 여수·순천지역 학도의용군, 서울학도포병대대와 비교할 때 태백학도의용군은 태백중학교라는 단일학교 지원병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6·25전쟁 중 한 학교의 학생들이 지원병으로 참전하여 독립중대를 이루고 휴전 시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 점에서 앞으로 ‘태백학도의용군’이라는 명칭보다는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 또는 ‘태백중학교 학도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그 성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고, 다른 학도의용군과도 구분되는 차별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명칭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명칭을 사용하여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성격, 즉 단일 학교 참전 학도병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태백중학교 학도병 참전 활동의 의의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참전 시기와 해산 시기부터 다른 학도병과 구분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6·25전쟁 중 1·4 후퇴와 관련되어 참전하였다. 이 점은 주요 다른 학도의용군과 비교할 때 참전 시기에 뚜렷이 차이가 난다. 즉 독립부대로 활동한 학도의용군 가운데 수도사단 학도의용대와 여수·순천지역 학도의용군은 개전 초인 7월에, 제3사단 학도의용군은 8월에 이미 만들어지고, 서울학도포병대는 9·28서울 수복 직후에 결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 시기는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해산 시기도 주목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학도병 복귀령에 따라 제3사단 학도의용군은 1951년 3월 16일 해산되었다. 여수·순천지역 학도의용군은 이미 1950년 8월 13일 해산되고, 대부분 현역으로 전환되어 복무하였으므로 극소수만 학교로 복귀하였다. 서울학도포병대대도 여러 번의 재편성 결과 구성원이 여러 부대로 흩어졌고, 상당수가 장교, 하사관,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학교복귀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반면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1951년 3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종군학생 복교령’을 하달하였지만, 6월 1일 양양군 송림에서 나무로 만든 군번을 부여 받아 현역으로 입대함으로써 학교로 복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6월 1일까지도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해산되지 않은 것이다.⁴¹⁾

또한 교사(故박효철)도 학생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종군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한 시골 중학교에서 선생님을 필두로 127명이 단체로 자진 입대하여 1개 중대로 편성 종군한 사례는 한국전쟁에서 유일무이한 사실이다.⁴²⁾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것은 태백중학교 학도병이 사실상 단일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1개의 독립중대(학도중대)를 이루어 참전을 하였다는 점

41) 일부 학도의용군이 해산되어 복귀하는 절차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중학교 학도병을 뒤늦게 현역에 편입시킨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42) 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86쪽 김성진의 증언.

이다. 당시 태백중학교는 남·여 공학이므로 여학생과 외부의 일부 유학생을 제외하면, 123명이라는 태백중학교 소속의 학도병 숫자는 가히 전교생의 50%를 상회한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단일학교당 참전 비율에서도 최고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학교가 ‘진해중학교 학도병’이다. 그러나 당시 진해중학교 전교생의 약 1/3인 206명이 1950년 8월 30일 자원입대하였지만, 다음 날인 1950년 8월 31일 군번을 받아 현역병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역병으로 참전한 것과 다를 바 없다.⁴³⁾

이러한 점에서 1951년 1월 9일 학도병으로 참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난 태백중학교 학생들이 6월 1일 현역에 입대하기까지 약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학도병으로 참전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포항여중 전투에 참여한 학도병들이 3사단에 편성되었고,⁴⁴⁾ 이들은 3사단 23연대와 함께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⁴⁵⁾ 전쟁 초기 북한군이 시도한 낙동강 교두보의 동부 지역 돌파에 맞서 포항여중 전투에 참여했던 ‘제3사단 학도병’ 71명은 김석원 장군을 따르던 학도병들이 단위부대로 결성한 조직이었다.⁴⁶⁾ 이들은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에 설치된 제3사단

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72쪽 각주 129번 참조.

44) 태백중학교 학도병들 중에는 포항여중 전투(1950년 8월 11일)에 참가한 자도 있었는데, 황재호, 조남수, 금병선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엮은이의 말 참조). 그러나 금병선은 포항여중 전투에서 당일 전사한 것으로 나온다(남상선·김만규, 1974, 『6·25와 학도병』, 170쪽). 하지만 태백중학교 학도병인 금병선은 정연복의 위의 책 237쪽에 수록된 전몰자 명단을 보면 1951년 12월 949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황재호와 조남수는 태백중학교 학도병 참전자 명단에 없다.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45) 포항여중 전투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부대 소속이 3사단 23연대로 소개된 다음 책자가 있어 그들의 소속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강릉학도 전우회, 2019, 『강릉학도 6·25전쟁 참전기』, 174~202쪽.

46) 제3사단 학도의용군은 김석원 장군 휘하에 모이기를 희망했던 학도들이 중심이 되어 단위부대를 조직하여 김석원 장군이 지휘하던 수도사단으로 갔다가, 김석원 장군이 제3사단으로 전보되자 학도의용군들도 함께 옮겨갔다. 신임 백인엽 수도사단장은 학도병중대를 독립부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들에게 현지 입대를 명령하자, 학도병들은 학도의용군이라는 순수한 동기와 명예로운 자격을 원하여 수도사단 학도의용대는 발족 10여 일만에 해체되었다. 그리고 학도병들은 고향으로 귀향하지 않고 다시 김석원 장군을 찾아 포항으로 갔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75~104쪽).

후방지휘소를 사수하기 위해 48명의 전사자, 행방불명자 4명, 포로 13명, 후송자 6명 등 많은 인명을 희생하면서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8월 11일의 포항여중 전투에서 대부분 산화한 제3사단 학도병 중대는 다시 120여 명의 학생을 보충 받아 재편되었다. 이때부터 중상으로 입원한 학생 신분의 중대장을 대신해 사단에서 현역 장교가 직접 중대장(남상선 소위)에 취임하여 학생들의 훈련과 전투를 지휘하였다. 재편된 학도병 중대는 북한군의 9월 총공세를 맞아 싸우다가 유엔군의 총반격에 따라 사단과 함께 북진을 감행, 함경북도 길주까지 진격하였다. 이처럼 1950년 7월 26일 대구에서 자발적으로 결성, 수도사단 학도병을 거쳐 제3사단 학도병으로 활동한 이들은 포항 전투의 신화를 간직한 채 1951년 3월 16일 강원도 홍천에서 해산되었다.⁴⁷⁾

태백중학교 학도병들도 3사단 23연대에 독립중대로 편성되었다. 그러므로 두 학도병들은 서로 3사단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제3사단 학도병으로서, 포항여중 전투를 계승한 학도병 독립부대(중대)가 학도병의 학교복귀 담화 이후 1951년 3월 16일 강원도 홍천에서 해산한 반면,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여전히 제3사단 23연대의 학도병 독립부대(학도중대)로서 전선을 누볐다는 점에서 그 계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수도사단 김석원 장군을 찾아 안동으로 온 학도병들은 87명이다. 대개 서울, 수원, 대전지역에서부터 학도의용대에 가담한 이들로서 서울 출신과 서북청년 출신들이 많았고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학생은 불과 10명 안팎이었다. 김석원 장군이 3사단으로 전보된 이후, 후임 수도사단장인 백인엽 대령은 학도병의 독립부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현지입대를 명령했다. 이에 87명 중 16명은 현지입대를 하고, 나머지 71명은 순수 학도병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김석원 장군의 3사단으로 찾아가 포항여중 전투에서 48명이 전사하고, 13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6명이 중상을 입었고, 4명이 행방불명 되었다. 포로가 된 13명 가운데 3명은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포로였다가 탈출한 학도병, 실종되었던 학도병, 경주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학도병 9명은 다시 김석원 사단장을 찾아가 새로 지원 편입된 학도병들과 함께 총 76명으로 학도의용군 부대(중대)라는 명칭으로 재건되었고, 남상선 현역 소위가 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남상선·김만규, 1974, 『6·25와 학도병』, 85~225쪽 및 353쪽 연표 참조).

47) 육군본부, 1994,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107쪽.

제3사단 학도의용군의 형성과정으로부터 참전, 북진 그리고 부대가 해산될 때까지 과정은 주로 남상선·김만규 공저인 『6·25와 학도병』(1974)과 남상선의 『학도의용군』(1994) 참조.

Ⅶ.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선양 및 활성화 방안

1952년 9월 중순에 태백중학교에서 교사 2명의 인솔 하에 후배 학생 30여 명이 위문차 전선을 방문하였다. 학도중대와 위문단의 만남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한 학교 출신이 한 부대에서 1개 중대가 되어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모교에 태백출신 전몰학도병 충혼탑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자, 후배들이 박수를 보내 동의하였다. 이에 학도병들은 봉급을 학교에 보내기로 합의하고, 태백중학교 출신 학도병들의 친목회를 만들고 명칭을 화랑도와 태백을 뜻하는 ‘화백회’로 정하기로 하였다.⁴⁸⁾

그 결과 휴전 이후인 1954년 11월 1일 전사한 18명의 학도병들의 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충령비를 모교(현 태백초등학교)에 건립하였고, 1954년 12월 8일 충령비 제막식 및 제1차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다가 1963년 10월 8일 태백중학교가 하장성 평화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의 태백기계공고 교정에 충혼비를 건립하고 제10회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1971년 5월 10일 태백중학교가 분리 독립하면서 현재의 태백중학교 교정에 충혼탑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학도병 동상도 1992년 8월 10일에 건립하고, 1994년 5월 4일 제막식을 거행하였다.⁴⁹⁾

태백중학교에서는 학도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9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교정에 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국군 제3사단은 2005년 4월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사단 교육장 앞에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을 위해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태백중학교는 학도병 참전 이후 평균 5년 정도씩 군에 복무하느라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생존 학도병 70여 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였다.⁵⁰⁾

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134쪽.

49) 정연복 엮음, 2001, 『못다 핀 태백의 어린 꿈들-태백의 학도병 이야기-』, 239쪽 추모 사업 안내 참조.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134쪽.

이로써 현재는 태백중학교 학도병에 대한 추모와 선양 활동이 일단락 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비나 기념관과 같은 외형적인 하드웨어가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선양 활동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학도의용군(학도병) 명칭부터 제기하고 싶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간행된 책자에는 ‘태백학도병’, ‘태백학도의용군’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태백학도병’이라는 명칭보다는 ‘태백중학교 학도병’이 단일 학교 학도병이라는 성격을 규정하기에 적합하며, 이렇게 명명할 때 학도의용군 가운데 단일 학교별 최대 참전이라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태백중학교 학도병(학도의용군)’이라는 명칭이 그 성격을 반영하기에 더 명확하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음, 참전 수기를 통해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의 전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전장 답사 및 전투 지역 부대 배치도 작성과 함께 전투 일지와 전투 상황 보고 등의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 학도병이 참여한 전투 상황을 분석하여 각각의 전투 상황 및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태백중학교 학도병이 기여한 의미를 찾아 그 의의를 선양 자료인 자료집으로 발간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이 자료집을 토대로 지자체와 문화원은 물론이고 국가보훈처, 통일부, 교육부 등과 함께하는 태백중학교 학도병 선양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정부부처에서 태백중학교 학도병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단위학교의 연구학교 사업으로 발주하여, 학도병들을 선양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단위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1회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수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추모탑과 기념관을 찾아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3사단 추모비를 비롯한 주요 전적지를 찾아보는 체험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故박효칠 선생에 대한 선양도 필요하다. 작은 추모비나 흉상이라도 충혼탑이나, 학도병 동상 옆에 건립하였으면 한다. 학도의용군이 참전할

때 교사가 함께 참전하여 사제동행을 실천한 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에 맞서 싸운 자들에 대한 포상과 선양이 상당하였다. 그동안 故박효철 선생에 대해서 정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포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이 달의 교육자’나 ‘과거의 교육자에 대한 선양 사업’ 등을 만들어 그를 빛내야 하겠다. 이를 토대로 태백학도병 충혼탑과 故박효철 교사의 추모비나 동상이 있는 태백중학교를 순례 코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포항여중 전투에 참전한 3사단 학도병과 태백중학교 학도병 간에는 동일한 소속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계승성도 있으므로 자매결연 형식으로 두 단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도 있겠다.

Ⅷ. 맺음말

태백중학교 학도병은 1·4후퇴 이후 참전하여 18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어떻게 보면 태백산 천왕님과 태백산 산신령님이 보우하신 덕분이라는 생각도 든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들 학도병들 덕분에 태백 지역은 호국안보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듯하다.

나아가 태백지역은 대한민국의 경제 건설의 기초를 닦은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산업역군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태백의 학생과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할 때 앞장을 섰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태백중학교 학도병들도 그 활동과 업적이 당연히 선양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생존한 학도병들은 이미 고령화되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참전 수기를 확보해야 하고, 주요 전적지를 답사한 후 선양과 교육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집을 발간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학도병들의 참전 활동을 복원한 후, 다양한 선양 활동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태백의 주민과 학생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6·25 전쟁 참전 학도병 「토론문」

이 용 연 회장

(태백중학교학도병 화백회)

태백공업중학교는 1948년 4년제 남녀공학으로 개교한 학교입니다. 6.25 동란으로 학교는 휴교하고, 외지 유학생은 집으로 귀가하여 피난 가고, 피난을 못 간 학생은 산으로 피신하면서 밤에 잠깐씩 오곤 하였습니다.

인민군의 만행을 체험한 것이며 그러던 중에 수복되고 개교되기만 기다리고 있던 중 뜻하지 못한 중공군 개입으로 이 강산을 두 번 다시 공산당들에 유린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에 태백중학교 124명은 누구 한 사람이나서서 소집 이랄 것도 없이 나라수호 일념하나로 군대에 입대를 결심 후 경북 봉화군에 주둔한 보병 3사단 23연대를 찾아 현지 입대를 간청하였습니다. 간청 당시 나이가 어려 안 된다는 연대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 나이를 속여, 38선만 복구시키면 학교로 복교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전제(23연대장 김종순 대령) 지시를 받고 보병 3사단 23연대에 배속, 1월 14일자로 박효칠 선생님과 함께 태백중학교 1, 2, 3, 4학년 124명과 타교생 3명을 합하여 127명이 태백학교 중대로 편성하여 영월 녹전 전투를 시작으로 제천, 원주, 평창, 헐리, 강릉, 양양, 고성, 죽고개, 인제, 양구, 가칠봉, 백암산 수많은 전선에 참전해 부대경비와 패잔병 소탕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전쟁터에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고 특히 인제 상탑에서 군단이 적군에 포위되었을 때 촌각에 달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포위망을 저지하고 탈환하는 명령을 용케 수행하여 적을 무찌르고, 다음 전투

지인 정선, 강릉, 주문진, 대진, 문안리까지 전진하여 드디어 38선이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었던 학교 복교의 꿈은 무너지고 1951년 6월 1일 배움의 꿈을 저버리고 육군 이등병의 군번이 하달되어 동년 6월 15일 3사단 특수유격대 교육수로 2일 앞두고 전방이 무너짐에 따라 학도병 중대가 차출되어 무난히 막아내며 계속되는 전투에서 학도병들은 혁혁한 전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주지항선을 넘어 인민군 복장으로 적의 보급 차단과 탄약고 폭파 등 지금의 유격 전술을 해내며 동해안 고성 쪽고개 214고지에서 전투하는 등 일원에서 여러 명이 전사했고 3명은 적의 포로가 되어 가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또한 적을 생포하고 죽이고 죽어야 하는 육박전으로 두 달간 전력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입대 후 2년 6개월 만에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뼈를 묻는 18명의 전사자는 끝내 고향 부모님 품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학도병들은 전국에 흩어져 전쟁에 대한 후과로 병상에 있거나 대다수 별세로 전국에 몇 분 만이 생존해 있지만 이제 미수(米壽)를 맞거나 백수(白壽)를 앞둔 건강상 아주 연약한 상황에 모두 놓여있습니다.

이렇듯 학업에 있어야 할 나이에 입대하여 8년 가까이 군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니 이미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배움이 짧은 상태에 살길이 없어 당시 그나마 살길은 광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광부생활을 종사하다보니 진폐라는 직업병으로 그나마도 평생을 인간다운 삶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5.18 민주화라고 해서 보상금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고 묘역을 성역화 하는 것을 보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우리 어린 학도병들은 이름 모를 산천에서 구천을 헤매고 있거나 무덤조차 없다는 것이 뼈아프게 사무쳤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그들을 위해 또 내 자신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고민 끝에 국가를 상대로 진정서와 탄원서를 수차례 올린바 있으나 돌아온 답신은 한결같이 주무부처로 이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등이었고, 그 후로도 백방으로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보훈처 등에 문을 두드려 봤으나 그에 대한 답은 받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린 태백 학도병은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나라도 어린 중학생이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중학도병에게 보상을 못 줄 바에야 방위포장과 보훈포장을 주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온 재일 학도병과 대한민국의 학도병을 차별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럴 때 마다 국가를 원망하고 하소연 까지 한다는 것조차 어이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중학도병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 후손들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을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왔음을 근거할 수 있는 방위포장과 보훈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조 발표 김동정 교수님, 주제 발표 이상균 교수님, 홍영호 박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에 국가로부터 우리 학도병의 처우를 생각하면 학업시기에 배우지 못한 것과 군에 지원한 것이 후회스러울 만큼 한탄스럽습니다.

오죽하면 6.25와 같은 전쟁이 또 다시 발생된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학생들

에게 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싶은 심정이 절박합니다.

재 강조하고자 하는 요지는

1953년 9월 1일 장경순 23연대장님의 후원으로 태백학도병을 화랑도의 “화”자와 태백의 “백”자를 따서 “화백회”라고 이름을 지어 조직하였습니다. 첫 사업으로 모교에 충령비 건립운동을 하였고 전군에 있는 학도병은 박봉을 모으고 재학생들은 자갈, 모래, 채취하여 동문과 지역인사들의 협조로 1954년 12월 8일 당시 사단장 정래혁 장군을 모시고 사단군악대까지 동원 전방에 있는 학도병 전원을 18위 전사자를 위한 제막식에 참석으로 성대히 제막식 거행을 하였으며 매년 6월 1일을 군번을 받은 날로 정하여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 뒤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였습니다.

대통령 앞으로 6.25 참전 태백중학교 학도병 화백회 전공 보상금 요청서를 진정하였습니다.

국회 사무처 2016년 7월 14일자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 보훈처 민원회실

국가 보훈처 보상정책과 2016년 6월 29일 김효선 답신

국방부 포상 요청서 참전 육군 인사 사령부 보훈지원과 2016년 7월 17일 접수 하였습니다.

국회 보훈청 국방부로부터 6.25 참전 태백중학교 학도병 전공 보상 요청 답신은 현재 우리 화백회에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건대 일반 6.25 참전용사와 같은 유공자가 아닌 재일 학도병과 같이 학도병(태백중학교) 6.25 참전 유공자 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보훈처는 충혼탑을 성역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종합 토론

- 토론 및 의견개진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태백학도병 선양 학술회
6·25전쟁과 호국영웅 학도병 명예 선양

발 행 일 2019년 12월 6일
발 행 처 태백문화원
발 행 인 배팔수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136
대표전화 033-553-3160

[비 매 품]

- ※ 이 책은 태백시와 국가보훈처의 보조금으로 발간함.
(본 책자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복제를 금함.



태백문화원